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오거돈 동문(21회) 부산시장에 당선

노기태(20회) 부산 강서구청장 재선
윤종서(46회) 부산 중구청장 당선
이광희(30회) 김해시의원 재선

지난 6월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주요자리에 용마동문들이 당선돼 민선 7기에 용마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오거돈 동문(21회)도 4수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돼 민선 7기 부산시장을 이끌어 가게 됐다.

노기태 동문(20회)은 부산 강서구청장에 뽑혀 재선에 성공했고, 윤종서 동문(46회)은 부산 중구청장에 처음으로 당선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이광희 동문(30회)도 김해시의원에 출마해 재선의원이 됐다.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오거돈 동문은 4번의 도전 끝에, 이번 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 됨으로써 더욱 값진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된 것은 1995년 민선 지방선거 이래 처음이다.

오거돈 동문은 14일 오전에 끝난 개표결과 94만669표(55.23%)를 득표해, 63만2,806표(37.16%)를 얻은 전직 시장이었던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동문(25회)에게 18.07% 차로 승리를 거두었다. <인터뷰 4.5면>

오거돈 동문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것은 지난 2004년 15대 보궐선거였다. 당시 안상영 시장 구속으로 부산시장권한대행이던 오거돈 동문이 여당인 열린 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37.7%를 획득했지만,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이후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허 시장에게 연거푸 패했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친박 핵심이었던 서병수 동문에게 1.3% 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4수째인 이번 선거에서 서병수 동문과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했다.

오거돈 동문은 압도적인 여당지지율을 기반으로 30년동안 부산시에서 쌓은 경험과 15년동안 갖고 닦은 정치 내공으로 부산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오거돈 동문은 1948년생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에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목민관의 길을 걸어왔다.

동아대에서 한국정부의 사무배분 방식과 실패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이기도 하다.

부산시 교통관광국장과 기획관리실장, 부산시장권한대행 등을 거쳐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제13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부산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노기태 동문(20회)은 현역 구청장으로서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부산 강서구에 출마해 상대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지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기태 동문은 국회의원과 부산시정무부시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국제신문 사장 등을 역임해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짧은일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부산 중구청장에 뽑힌 윤종서 동문(46회)은 중구청년연합회 회장과 원도심 4개구 통합 반대 본부장 등을 역임한 소위 말하는 짧은 피다. 특히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인은 경남중고총동창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경남 김해시 바 선거구(장유 2동과 3동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해시의원에 출마한



부산시장 오거돈(21회)



강서구청장
노기태(20회)



중구청장
윤종서(46회)



김해시의원
이광희(30회)

이광희 동문(30회)도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재선에 성공한 이광희 당선인은 서울대 3학년 재학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돼 제적됐으나, 지난 2006년 명예졸업장을 받은 경력을 지니고 있다.

총동창회관 구입기금 고액 모금운동



모금현황(2018년 5월 22일 현재)

• 모금 계좌
부산은행 101-2053-6720-01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고객과 함께하는 건설·부동산 전문 로펌, 일신!

www.ilshinlaw.kr

- 법무법인 일신과 (주)일신CNA는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 로펌 및 기업입니다.
- 법률·기술·조세·금융 등 관련 전문가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객 맞춤형 ONE-STOP의 종합법률 서비스와 건축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 공익사업 토지보상 | 건설·부동산 분쟁지문 | 시설물 하자진단·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대표 변호사 송지훈(42회)

국장 정아준(33회) 010-6239-0301 | 상무 조진현(44회) 010-3029-7101

법무법인 일신·일신CNA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1(서초동, 서해빌딩)
Tel. 02-593-7100 Fax. 02-593-7102
E-mail. send@ilshinlaw.kr

‘기별야구대회’ 올해부터 총동창회 주최로 열려



총동창회집행부와 경야회 회장단과의 간담회가 지난 5월18일 서면 북개천에 위치한 일식당 '월강'에서 열렸다.

경야회, 예산문제로 개최권 반납 진행만 전념 50주년 기념 부산-서울대항전 개최기로 합의

그동안 경야회 주최로 진행돼 오던 ‘기별야구대회’가 올해부터 총동창회 주최로 열린다.

이에 따라 침체 기미를 보이던 기별야구대회가 활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18일 오후 6시30분 서면 북개천에 위치한 일식집 '월강'에서 열린 '총동창회 집행부와 경야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양측은 이같이 합의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기별야구대회 50주년을 맞아 부산-서울간 야구대회를 성대하게 치르기로 했다.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은 이날 모교인 경남고 야구부의 발전과 기별야구대회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예산부족으로 기별야구대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경야회 측의 의견을 듣고 그자리에서 총동창회에서 맡아 주최를 하고, 경야회는 경기진

행을 전담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남진현 자문위원장(19회)은 “기별야구대회를 원래 동창회에서 주최를 했는데, 안강태 고문(11회)이 회장을 할 때 야구 선수 출신들의 모임인 경야회로 넘겨 주자고 해서 넘긴 이후로 경야회에서 매년 주최를 해오고 있다”며 “요즘들어 몇몇 기수들이 기별야구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등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문제점이 뭐냐”고 물었다.

이에 박상국 경야회 회장(33회)은 “기별야구대회를 동문들과 동문가족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모든 기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며 “동문과 가족들을 위해 운동장 스탠드에 임시로 맥주나 간식류를 먹을 수 있는 간이 맥주코너를 만들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코너도 만들고 싶지만 예산

이 부족해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고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다.

그러자 박종찬 회장은 “예산문제로 기별야구대회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총동창회에서 예산을 집행, 주최를 하고 경야회에서는 경기 진행을 맡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문자 참석한 경야회 회장단이 모두 찬성을 표했다.

조용철 경야회 부회장(38회)은 “동창회가 야구부 감독 선임권이 없는 학교는 경남고뿐”이라며 동창회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다.

박종찬 회장도 “그 이야기는 여러군데서 들었다”며 “다른 학교의 예를 찾아 보고 학교측과 협의를 해 우리모교의 감독은 우리가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은 박상국 경야회 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고 경야회에서는 박 회장에게 기념품을 선물했다.

총동창회 집행부 호치민동창회 격려 방문

총동창회 집행부가 베트남 호치민 동창회를 격려차 방문하기로 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 등 임원진 8명은 호치민지역동창회(회장 이석호·25회)를 방문하기 위해 오는 7월 6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항공편으로 출국한다.

박종찬 회장은 “이번 호치민동창회 방문은 해외에서 단합하고 있는 동문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격려하고, 변화하고 있는 총동창회의 모습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추후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을 꾀해서 방문하는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다음과 같다.

박종찬 총동창회장, 옥동훈 총동창회 사무총장, 오양득 운영위원(25회) 김대욱 재정분과위원장, 박성철 법률자문분과위원장(29회) 신승렬 사무국장(36회) 윤경만 문화분과위원장(38회) 이양걸 기획분과위원장(41회)

한편 지난 6월15일 오전 11시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박종찬 회장 등 총동창회 집행부와 경야회 박상국 회장(33회), 덕형리그 이문열 회장(29회)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별야구대회 개최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 : 박종찬 동창회장(25회) 남진현 자문위원장(19회) 옥동훈 사무총장(25회) 이충원 경야회 고문(29회) 김성원 동창회보 편집주간(31회) 박상국 경야회 회장 백홍문 경야회 총무(33회) 신승렬 사무국장(36회) 김태호 IT분과위원장 조용철 경야회 부회장(38회) 김용철 경야회 회원(40회)

용마의 밤 12월 12일 서면 롯데호텔서 개최

“교통편리해 원로동문들 많이 참석할듯...”



경남중고 동문들의 최대행사인 '용마의 밤'이 올해는 오는 12월12일 서면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용마의 밤 행사때 모습.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최대 행사인 '용마의 밤'이 올해는 오는 12월12일 서면에 있는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린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지난 5월30일 남구 용호동 '이기한우'에서 열린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종찬 회장에 따르면 참석예상인원은 1,000명 정도로 보고, 행사장을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볼룸으로 정하고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 서면에 있는 롯데호텔 부산을 용마의 밤 개최지로 정한 것에 대해 박 회장은 교통편리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박 회장은 “지난 2010년까지 용마의 밤이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렸는데, 그 후부터 주로 코모도호텔에서 많이 개최됐다”며 “코모도호텔은 교통도 불편하고, 언덕위에 위치해 오는 길이 오르막이라 많은 동문들이 힘들고 교통

이 불편해서 참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통이 불편하다보니 나이드신 동문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 총동창회 최대의 행사가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며 “롯데호텔은 도심인 서면에 있어 사통팔달인데다 지하철이 바로 연결돼 거동이 불편하고 나이가 든 동문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최지 변경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용마의 밤은 롯데호텔에서 열리다 소요경비 문제로 코모도호텔과 경남 중학교 체육관 등에서 개최됐고, 매년 열리는 행사를 격년제로 변경해 행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것도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보겠다”고 밝혔다.

용마의 밤은 경남중고등학교 출신 동문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최대 행사로 격년제로 연말에 개최돼 왔다.

‘동창회 중추’들의 북해도 결사… “선후배 연결 고리될 터”

“국장들의 희생 속에 동창회가 발전한다”

각 기수 및 직능 동호회 국장모임

‘동창회의 일선 사단장들인 국장들이 모여 총동창회의 발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각 기수 및 직능·동호회 국장단 모임이 지난 5월28일 오후 6시30분 서면 북개천에 위치한 일식당 북해도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과 남진현 자문위원장, 옥동훈 사무총장 등 집행부가 참석했고, 국장단에서는 24회 김인구 국장부터 51회 이진영 국장까지 모두 40명이 참석해 각자 소개와 함께 동창회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종찬 회장은 이날 “동창회를 위해 봉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 봉사와 돈 봉사다. 국장들은 엄청난 시간 봉사를 하고 굵은 일을 한다”며 “국장의 희생 속에 단체가 유지되고 성장한다. 여러분이 최고의 역할을 한다. 이런 최고의 역할을 하는 국장들과 얼굴도 보고 정도 나누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서 박 회장은 “국장들은 모두 국장전용 밴드를 활용해 동창회가 어떻게 흘러가기도 알아보고, 동창회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도 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총동창회가 발전하려면 재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재원확보 방법중 하나가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라며 구독료 납부를 독려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417호 동창회보를 직접 들고 조지표 등 내용을 설명하며 “동창회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 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 후 신승렬 사무국장의 사회로 각 기수별



경남중고 총동창회 각 기수 및 직능 동호회 국장단 모임이 지난 5월28일 오후 6시 30분 서면 북해도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직능별 동호회별 국장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박태종 33회 국장은 “내년이 홈커밍데이라 32회 홈커밍데이에 참석을 해 보고 왔다”며 “내년에 더욱 좋은 홈커밍데이를 하겠다”고 의욕을 나타낸 후 “회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국장들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36회 김종오 국장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준 회장님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한 후 “원도심에 거주하는 동문들을 중심으로 중부산지구 동창회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좀 동력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구 단위 동창회의 모범이 됐다는 평을 듣는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언론인 클럽 국장을 맡고 있는 정윤희 동문(36회)은 “부업으로 해운대지구 동창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후 “언론이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다가가기 힘든 분야인데, 만약 동문들 중에서 언론에 관해 상의할 일이 있으면 연락하면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용마코스 국장인 39회 김병기 동문은 “용마코스는 전국을 다니며 공연을 한다”며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시민회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니까 관심이 있는 동문은 언제든지 찾아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많은 국장동문들이 동호회와 직능회 등 각자가 속해 있는 소그룹 동창회를 소개했다.

그리고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선후배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국장들의 소개가 끝나자 박종찬 회장은 “올해는 용마의 밤과 기별야구대회 등 큰 행사가 많다”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예약을 한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행사에 동기생들의 참석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 예측가능한 모임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수고스럽겠지만 동기생들에게 동창회보가 배달됐는지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끝냈다.

회의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아시장’이라는 주점에서 20여명이 뒷풀이를 하며 선후배간의 정을 이어나갔다.

특히 이날 모임장소에 입장하는 국장들에게 박종찬 회장이 사비를 들여 제작한 금색 경남중고 배지를 나누어주었다.

배지는 한정판으로 제작됐는데 박 회장이 400개, 해운대 동창회에서 100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뒷풀이 비용은 박종찬 회장이 부담했다.

모교 졸업식에 분과위원장상 신설키로

“동창회보 발행·편집권 넘겨줄 수 없어”

집행분과위원장 월례회

‘모교 졸업식에 분과위원장상을 신설하기로’ 경남중고 총동창회 집행분과위원장 월례회가 지난 5월30일 남구 용호동 십자리 ‘이가한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과 남진현 자문위원장(19회), 옥동훈 사무총장(25회) 등 집행부와 분과위원장 11명이 참석해 총동창회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박종찬 회장은 참석한 분과위원장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총동창회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박 회장은 첫번째 안건으로 재경동창회와 의 동창회보 통합 문제를 꼽아 냈다. 박 회장은 “서울에서 동창회보 편집권을 가져가려고 한다”며 “모교가 있는 총동창회가 동창회보를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행권과 편집권을 넘겨줄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둘째안건으로 소그룹 지구단위 동창회 확대에 대해 설명했다.

박 회장은 “최근 양산지역 동창회가 부활했고, 동래·금정지구 동창회도 창설됐다”며 “앞

으로 부산진·연제지역과 북·사상지구 동창회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로 기별 야구대회가 50주년을 맞는다”며 “지금까지 기별 야구대회를 경야회에서 주최를 했는데 매년 1,200만~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다. 경야회에서 협찬도 받을 수 없어서 기별야구가 침체돼 왔다. 경야회에서 총동창회로 주최권을 반납해 올해부터 총동창회에서 주최를 하고 경야회에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오는 10월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50주년 기념으로 재경동창회와 친선야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들어 줄어들었던 모교 야구부에 대한 지원금을 인건비 매달 100만원과 전국대회 출전시 지원금으로 경남고는 200만원, 경남중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최근 총동창회의 화두인 총동창회 밴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박 회장은 “밴드 가입 이벤트를 했더니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2,000명이 넘었다”며 “밴드가 활성화 돼 동문이나 각종 모임의 소식을 공간을 뛰어넘어 신속하게 들을 수 있고 선후



지난 5월 30일 남구 용호동 십자리 ‘이가한우’에서 열린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총동창회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배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말미에 주요의제 2개가 올라왔다.

그중 하나가 총동창회 집행부의 해외지역 동창회 격려방문의 일환으로 오는 7월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로 베트남 호치민 동창회를 방문하기로 했다는 것.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참가희망자를 받았다.

그리고 모교인 경남고와 경남중 졸업식에 분과위원장상을 신설하자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은 참석한 분과위원장들 사이에 상의 회소성에 대한 문제로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분과위원장 개인이 시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한편 모임이 있던 날 모교인 경남고가 황금사자기 4강에서 광주일고에게 패배해 결승전

에 진출하지 못한 것이 이날 모임에서 단연 화두였다.

박종찬 회장은 “결승전에 진출했으면 관광버스 3대를 대절해 단체로 응원을 갈 예정이었는데 심판때문에 무산됐다”며 “앞으로 남은 대회가 많으니 그때를 기억하자”는 말로 아쉬움을 달랬다.

회의를 마치고 이가한우 4층에 있는 루프탑에서 맥주로 황금사자기 야구에 대한 울분을 풀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그 자리에 이번 지방선거에 부산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40회 박효석 동문이 인사차 들렀다.

2차 비용은 모두 박종찬 회장이 부담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인터뷰

“부산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

지난 6월1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4수 끝에 오거돈 동문(21회)이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우리가 오거돈 동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말더듬일 것이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 시작한 노래가 지금은 성악전공자 못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은 노래를 좋아하고, 동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해같다고 한다.

동문 모임 어느자리에 가도 노래 한 곡 부르도록 해주면 만사 오케이다. 언제나 즐겁게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고향 부산을 '시민이 행복한 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그의 포부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았다.

먼저 부산 시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문들이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당선인께서는 동창회장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동문들의 기대가 큼니다. 동문들에게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사랑하는 경남중·고등학교 용마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장 당선인 오거돈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저를 응원해주신 용마인 선배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동문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키워던 우리 고향, 부산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함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만큼이나 저 역시 지금껏 살아오면서 감당해왔던 그 어떤 일보다 무겁고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간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그 위상이 추락했고, 부산시민들과 여러분의 자부심마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부산을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세계적인 해양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동문여러분이 부산의 주인입니다. 부산이 재도약하는데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시오.

부산을 반드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당선인께서 노래부르기를 즐겨하시고, 또 오마합창단의 일원이 되기도 하셨는데 노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말더듬이 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심한 콤플렉스였고 하도 더듬거려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생겨 비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노래를 부를 때는 전혀 더듬지 않았습니다. 음악선생님이 노래를 씩씩하게 부른다면 합창단에 넣어주실 정도였고 대회에 나가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말더듬는 걸 고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다보니 평생 노래를 즐겨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5년 전부터 '멜로매니아'라는,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동문들이 성공한 부산시장으로 남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동문들이 성공한 부산시장으로 만들어 달라” ‘말더듬’ 고칠려고 시작한 음악 이제는 매니아급 도시철도와 버스연계해 교통 편의 증진시키겠다

성악을 배우지 않았지만 성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매년 꾸준히 공연도 해오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3전4기의 도전 끝에 부산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있고 또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패배'라고는 하셨습니다만 해묵은 지역 구도를 깨뜨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늘 명분 있게 싸워왔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의연할 수 있었지만, 늘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나를 격려해주는 자원봉사자들과 지지자 분들을 만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부산의 변화와 발전만을 생각하며 한걸음 걸어왔고 그런 가치와 신념으로 힘들었던 순간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장으로 당선되니 저보고 꿈을 이뤄서 얼마나 좋냐고 덕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만 알려드리지만 사실 시장이 되는 건 제 꿈의 일부입니다. 제 꿈은 '성공한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 늘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저를 성공한 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성공한 시장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그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7세입니다. 젊은이들 못지않게 아주 건강하십니다. 평소에 하시는 건강관리 비법이 있나요?

- 만으로 69세입니다. 힐러리 누나나 트럼프 형보다 제가 더 어렵습니다. 아직 60대인데 건강 걱정할 나이가 아닙니다.

사실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고, 당뇨나 성인병은 물론 없고, 먹는 약도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팔굽혀펴기 100회 정도는 지금도 자신 있습니다.

등산이 취미인데 젊은이들에 뒤처지지 않고 오늘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젊고 건강합니다.

평생 저 스스로를 연마하고 끝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 시장 도전은 물론이고 장관도 하고, 대학총장도 2번하고, 또한 한국해양연맹총재 등 NGO활동도 해왔습니다.

저의 이런 도전정신이 제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산시정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약으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신가요?

- 수조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관문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부산의 향후 100년을 내다 보는 명운이 걸린 사업입니다.

학력 및 경력

- 1967년 2월 경남고등학교卒
- 1971년 2월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卒
- 1973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卒
- 1978년 7월 해군 중위 전역
- 2006년 2월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석사卒
- 2003년 2월 동아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 2012년 2월 말레이시아 MSU대학교 경영학 명예 박사

주요 경력

-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해양수산부 장관
-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부산광역시 시장 권한대행
- 현부산대학교 석좌교수
- 동명대학교 총장
- (사)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 대통령비서실, 내무부, 부산광역시 근무
-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위 위원
-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 및 고위자문위원
-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공동이사장
- 해양산업발전협의회,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이사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고문
-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장
- 대학교육협의회 이사
- 세계해양대학총장협의회(IAMU) 의장
-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수상 경력

- 1999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 2006년 청조근정훈장 수상
- 2011년 제12회 부산문화대상 수상

도서

- 2006년 「나는 희망을 노래한다」 (금샘출판사) 출간
- 2012년 「우리에게 바라는 땅입니다」 (다인커뮤니케이션즈) 출간

김해공항 확장이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물론,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들이나 일부 시민들께서도 지역 간의 갈등이 재현되지는 않을지 걱정했던 마음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밀양신공항을 주장할 이유가 없고 지역 간의 갈등 유발 요인도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걱정해야 할 것은 대구가 아닌, 김해 신공항 활주로 건설에 따른 소음영향으로 김해를 비롯한 경남의 반대 여론입니다.

저는 김해신공항의 문제점과 가덕신공항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시민들과 문제를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한 24시간 가덕 신공항을 건설해서, 부산의 유라시아 관문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로서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5면에 계속~)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인터뷰

“동문들 부산으로 돌아와 변화와 발전 견인해주길”

<4면에 이어서>

시민들, 특히 해운대 주민들은 버스중앙차로 제에 대해 민원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좁게는 해운대 주민으로서 버스중앙차로에 대해 느낀 점이 많을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 BRT는 교통혼잡이 일상화된 우리 부산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소통부재와 노선선정의 잘못으로 시민들에게 나쁜 정책으로 인식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산의 버스는 교통수단 부담률이 24%에 불과합니다.

교통정책은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은 도시 관리의 기본입니다.

문제는 어떤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가 인데, 저는 버스보다는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와 버스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 시킬 계획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가 없는 광역도로에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광역권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신 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 출마 선언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을 21세기 신해양시대에 걸맞는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어내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북아 해양수도는 부산을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싱가포르, 홍콩 등과 같은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입니다.

세계적인 해양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1천만 자립형 해양도시권’을 형성하여 메갈로폴리스로서의 잠재력을 확보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국제적인 관문 공항 건설이 필수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부산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랜 동지, 용마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도전정신이 건강유지 비법

부산 신항과 유라시아 철도, 신공항이 연계한 Tri-Port 구축을 위해서 글로벌 물류거점으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기반이 될 ‘가덕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서구 일원에 교통물류 요충지에 ‘국제자유 물류전용도시’를 만들어 연구개발(R&D)거점 및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은 물론이고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허브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통해 기존 강서구 맥도일원이 아닌 ‘북항재개발지역’에서 개최토록 하여 향후 해양경제특구 전환 등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재정비 촉진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의 경제·산업·문화·관광 분야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부산의 시정은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 가는 새로운 길이 바로 대한민국의 길임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 만들어 성공한 시장으로 남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제 목표는 부산을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세계적인 해양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동문들이 이제 부산으로 돌아와 우리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곳, 우리의 고향부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부산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시민행복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 부산의 새 시대를 열어갈 저의 응원단이 되어주시시오. 항상 격려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시오. 저도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자랑스러운 용마인이 되겠습니다.

저의 오랜 동지, 우리 용마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마횃집

대표 김대식 (31회)

“광안대교 최고의 전망”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0-48, 바다산책 B/D 2층(수변공원 앞)
Tel. 759-7337(대) / Mobile. 010-2619-2262

안녕하십니까.
31회 김대식입니다.
동문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진 민락동 수변공원 옆 용마횃집을 오용환 동기로 부터 6월 초에 인수 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정통일식집 동경구락부를 13년간 운영하였습니다.
이 경험과 후라경고 정신으로 용마의 상징인 용마횃집을 동문 여러분의 사랑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동문 선배님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용마횃집 대표 김대식 배상

‘門前成市’ 이룬 동래·금정지구 동창회 창립총회

‘경남중고 동래·금정지구 창립총회’가 지난 5월25일 오후 7시 동래구 세연정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는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남진현 지문위원장, 옥동훈 사무총장 등 총동창회 집행부와 이상화 동래·금정지구 동창회 초대 회장, 이문열 수석부회장, 이웅길 32회 사무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래·금정지구동창회 초대사무국장 박정민 동문(38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이상화 동문(25회)을 초대회장으로, 이문열 덕형리 그 회장(29회)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상화 회장은 인사말에서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자 청춘이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동래·금정지구 동창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선배들의 배움과 후배들의 패기로 동래·금정지구 동창회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많은 동창을 부탁하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동래·금정 지역에 소그룹 동창회가 없어서 25회동기인 이상화 회장에게 동래·금정 지역에 동창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 오늘 이렇게 결실을 보게 됐다”며 “신설 동창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느슨하고 참석자도 적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되고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덕담을 했다.

그리고 “동창회에 40회대 기수들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지난 3월25일에 총동창회 밴드를 만들었는데 가입자 수가 2,000명을 초과할 정도로 성공적이다. 지금 총동창회 밴드에는 동문들의 동정뿐 아니라 선후배간의 연락의 장이 되고 있다. 지구 동창회도 밴드를 개설해 인프라를 키우고 후배들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밴드개설을 권했다.

동창회보에 대해 박 회장은 “동문들의 동정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인 동창회보가 집으로 배달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전화가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많이 온다”며 “동창회보가 오지 않으면 반드시 사무국으로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자리를



‘경남중고 동래·금정지구 창립총회’가 지난 5월 25일 오후 7시 동래구 세연정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일부 동문, 회의장 비좁아 옆방에서 식사 14회부터 50회까지 선후배 40여명 참석

두고 동문끼리 경쟁을 하게 돼 총동창회 집행부는 선거에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며 다시한번 총동창회 집행부의 선거중립을 확인시켰다.

박 회장의 축사가 끝난 후 박정민 사무국장이 총동창회 집행부를 소개했다.

그 후 윗기수부터 참석자 개인소개가 이어졌다.

참석자 중 가장 고참인 14회 동문은 2명이 참석했다.

김봉춘 동문(14회)은 “동래·금정지구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한다”며 “오늘 동래·금정지구 동창회 창립총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참석자중 가장 윗기수라서 부담이 된다. 다음 모임에 참석할 때는 동기들뿐 아니라 우리보다 윗기수 선배님들도 모시고 오겠다”고 약속했다.

김기열 동문(23회)은 “동창회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무엇을이라는 동문들의 동정을 전해주는 코너인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축소돼 유명무실하게 돼 오고 있다”며 “이 코너가 풍부해지면 동창회보를 구독하는 인원도 늘어날뿐 아니라 보는 맛도 더 커진다.

각 기수별로 크든 작든 모든 동정을 받아서 게재해달라”고 건의했다.

49회 동기회장인 최진영 동문은 “다른 지역에는 모두 지구 동창회가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없어서 서운했는데 생기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며 “오늘은 49회 대표로 참석했는데 다음에 올 때는 모두 같이 오겠다”고 말했다.

참석자 개인소개가 끝난 후 남진현 지문위원장의 건배사가 있었다.

남 위원장은 “33년동안 동창회 일을 해왔는데, 박종찬 회장이 동창회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돕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경남중고 동창회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뿐 더러 소멸될 수도 없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한다. 동창회 활성화 차원에서 동래·금정지구 동창회를 발족시켰다. 퐁퐁 뭉치는 의미에서 함께 나가자로 건배사를 하자”고 제의했다.

이문열 수석 부위원장은 일일이 참석자들을 거명하며 인사를 한 후 “이상화 회장님 및 여러 선후배를 모시고 동래·금정지구 동창회가 출

범을 했다”며 “대동단결해서 빠른 시일내에 발전을 이루어 타지구 동창회에 뒤지지 않는 동창회로 만들겠다.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총동창회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문열 수석부회장의 인사가 끝나고 박정민 사무국장의 클로징 멘트로 모임이 끝나고 인근 커피숍으로 옮겨 동창회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이어나갔다.

한편 이날 예상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관계로 예약한 방이 비좁아 일부 동문들은 옆방에서 독립적으로 식사를 하는, 설움 아닌 설움을 당했다.

이날 총동창회에서 금일봉을 전달했고, 모임에 소요된 경비는 모두 박종찬 회장이 부담했다.
◇참석자 : 김봉춘 조기정(14회) 백승진(15회) 유영명(16회) 윤호중(17회) 남진현(19회) 강영도(21회) 김기열(23회) 강용주 김옥권 김종국 김중현 김태선 박세철 박종찬 손기천 옥동훈 윤태석 이상화 최치환(25회) 정인식(28회) 김성원 안중수(31회) 민길식 서태원 이웅길(32회) 장정석(33회) 이동희 임창섭 정연희(36회) 김경곤 김원철 김태호 박정민 박태봉 신동훈 심재영(38회) 김종엽 문병운(39회) 한수열(40회) 최진영(49회) 김석훈(50회)

양산지역 동창회 박경수 회장(31회) 선출

경남 양산지역에 거주하는 경남중고 출신 동문들이 지난 5월24일 ‘아무거나 식당’에서 만났다.

이번 모임은 박종찬 총동창회회장의 초대 양산지역동문들이 양산지역동창회를 다시 재건하자는 취지에서 모임을 가지게 됐다.

이날 박종찬 회장을 비롯해 남진현 지문위

원장(19회), 옥동훈 사무총장(25회), 김태호 IT분과위원장(38회) 등 총동창회 집행부 4명과 박옥양 양산지역 동창회 전임회장(20회) 등 양산지역에 연고가 있는 동문 17명 등 모두 21명이 모였다.

특히 이날 참석 동문은 20회 박옥양 동문부터 50회 박종현 동문까지 다양한 기수들로 구성돼 앞으로 양산지역 동창회가 무한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날 모임에서 신임 양산지역 동창회 회장으로 박경수 동문(31회)이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날도 역시 박종찬 회장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금색 모교 배지를 나누어 주었다.



양산지역 동창회 재건총회가 지난 5월24일 양산 '아무거나 식당'에서 열렸다.

사하지구동창회, 봄 여행 걷기대회 개최... 오거돈 동문 참석

사하지구 동창회가 주최하는 ‘동문과 함께 봄 여행 걷기대회’가 지난 5월26일 오전10시 낙동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낙동초등학교에서 삼나무 숲길을 따라 꽃마을까지 승학산 굽어진 산책로를 따라 1시간 30분 가량 걸었다.

이날 박종찬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총동창

회 집행부 간부들이 많이 참가해 행사를 격려했다.

특히 이날 종착지인 꽃마을 예전집에 더불어 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오거돈 동문(21회)이 우연히 참석해 동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5월26일 열린 사하지구 동창회가 주최하는 ‘동문과 함께 하는 봄 여행 걷기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靑沙浦 푸른 바다와 함께한 ‘해운대孝동창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따라 40분간 트레킹

‘가정의 달’ 맞이 경남중고 해운대지구 ‘효’ 동창회가 지난 5월 19일 낮 12시 해운대구 청사포 착한횃집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은 이날 오전 11시 해운대 해수욕장 옆 미포 입구에 있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까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따라 40여분간의 트레킹을 했다.

다릿돌 전망대에서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원로동문들을 만나 시속 10km의 돌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화이팅을 외치며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그리고 약속장소인 착한횃집에서 푸짐한 회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

식사 후 정윤희 해운대지구 동창회 회장(36회)은 인사말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선배님들을 모시는 효동창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동창회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40대이후 후배 기수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동창회의 현실이다. 몇 년동안 동창회 활동이 줄어들어 그런 것 같다”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동창회 밴드에 대해서 박 회장은 “밴드가 개설된 지 두달만에 2,000명이 넘는 동문들이 밴드에 가입해 있는데 윗기수 선배님들은 들어 오지 않는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13회 배대결 선배님이 밴드에 자주 댓글을 달는 등 왕성하게 활동을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동창회관 구입과 동창회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니 많이 도와달라”며 “후배들이 많아 도와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종찬 회장의 축하인사가 끝난 후 해운대지구 동창회 임원들의 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참석자 개인 소개 시간을 가졌다.

맨 위 기수인 11회 백금덕 동문과 13회 배대결 동문은 “신임 박종찬 회장이 동창회를 위



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총동창회 밴드 가입시 기수 얼굴사진을 넣는게 기본인데, 이것을 잘 지키지 않는 동문들이 많으니 공지사항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알리자”고 제언했다.

14회 김화옥 동문과 15회 하영수 동문은 “총동창회와 해운대지구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며 모임때마다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특히 18회 하영일 동문이 동기회 총무를 맡고있으며 “해운대 지역에 거주하는 동기들이 많이참석할 수 있도록 광고를 많이 하겠다”고 말해참석자들로부터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20회 금석주 동문은 “무슨 모임이든 모임은 무조건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동창회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허리를 튼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23회 동기 회장인 전상대 동문은 “내년이 졸업 50주년인데 좋은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총동창회와 해운대지구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참석자들의 자기소개 발언이 끝나



①지난 5월19일 청사포에서 열린 해운대 효동창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미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②해운대 효동창회에 참석한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고 정윤희 회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1차 모임이 끝났다.

2차는 건강을 위해 커피로 하지는 동문들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인근 카페로 가서 차를 마시고 금석주 동문의 지휘로 찬란한 옥과 같이...로 시작하는 교가 제창을 한 후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이날 박종찬 회장이 25만원을 협찬했고 전상대 23회 동기회 회장이 2차 커피값을 전액

부담했다.

◇참석자 무순 : 백금덕(11회) 배대결(13회) 김화옥(14회) 하영수(15회) 이종길 박흥식 문석영 신정아(17회) 하영일(18회) 남진현(19회) 금석주(20회) 조성근 권용호 정영천 강수경 오의희(21회) 전상대 이순(23회) 김인구(24회) 박종찬 박광용 (25회) 박영홍 정덕찬(30회) 김성원(31회) 이석희(33회) 신승렬 정윤희 김창일 김호진(36회) 김승일 김태호(38회) 윤원욱(39회)

남부산지구 동창회에도 동창회기 펄럭

공식적인 지구단위 모임으로 격상

수영구와 남구에 거주하는 동문들과 이 지역에 직장 있는 동문들의 모임인 남부산지구 동창회 3월 정기모임이 3월14일 오후 7시 부경대 후문에 있는 32회 박종우 동문이 운영하는 남남 한식당에서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조선 남부산지구 동창회 회장(34회), 이종철 남구청장(16회), 정량부 전 동의대 총장(17회), 광두회 지문위원(24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박종우 동문이 동창회에 대해 애정이 많다”며 “부산대점에 이어 이곳에 부경대점을 오픈해 모임장소로 정했다.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장소에 대해 양해를 구한 후 말을 이어나갔다.

조선 회장은 “박종찬 회장이 취임한 후 동창회가 액티브하고 활성화 됐다”며 “모든 지역·직능 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최

근 동창회의 흐름을 소개했다.

그리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동문 2명이 부산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는데 선거 이후 동문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부산지구 동창회의 지주인 이종철 남구청장은 “올해 첫 회의를 축하한다”며 “용마인으로서 지역발전과 사회안전을 위해 애쓰는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한다. 회장을 위시해 남부산지구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했다.

이어서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과 부산을 책임지고 있는 서병수, 그리고 총동창회를 책임져야 할 박종찬이 모두 같은 동기라며 문재인과 서병수 못지않게 총동창회 일을 맡김하게 처리하겠다”고 의욕을 불태웠다.



남부산지구 동창회에 참석한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조선 회장에게 남부산지구 동창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동창회 승패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있다. 동기회와 지역 모임이 활성화 되면 총동창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동문들이 동기회에 참석하고 지구단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동창회에서 전달하는 남부산지구 동창회기와 금일봉을 조선 남부산지구 동창회 회장에게 건넸다.

참석자들 한명 한명 개인 소개가 이어지고 식사가 끝난 후 모임이 막을 내렸다.

세월을 넘은 화합의 김해지역 동창회 자부심 가득

바둑대회 7월7일 밀양 무안서 개최

김해지역 동창회 6월 월례회가 지난 6월5일 오후 7시 김해시 대청동 공원회센터에서 23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월례회는 모처럼 장유지역에서 열렸는데 김영기 동문(23회)과 김종만(25) 이문섭(28)동문들이 모처럼 참석해 반가움과 끈끈함이 더해진 자리였다.

선후배들간에 세월의 차이를 넘어 화합하는 모습은 모든 지역동문회의 귀감이 될 만하다는 자부심을 가진 하루였다.

한편 김해지역 동창회는 오는 7월7일 오전 10시 제3회 경남중고 김해지역 동창회 바둑대회를 밀양시 무안면 차의수 수석부회장(29회) 별장에서 개최한다. 참가비는 2만원. 이날 오전 9시 만포정 앞에 모여 단체로 출발할 예정이다.



김해지역 동창회 6월 월례회가 지난 6월5일 김해시 대청동 공원회센터에서 열렸다.

◇참석자

윤대희(21회) 이상운 김영기(23회) 조판제 김종만(25회) 최연삼 이문섭(28회) 차의수 박

광수 박준모 박희규(29회) 이광희(30회) 신수열 황성철(31회) 최호영 배종찬(32회) 노태진

정희태(34회) 최민석(35회) 박형출 김용진(36회) 김기택(37회) 조영호(44회)

◇찬조 : 김영기 이사(23회) 식대 신수열부회장(31회) 10만원 박희규(29회) 3차 찬조



미국 북가주지역 동창회가 지난 5월26일 오후 1시(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뉴악(Newark)에 있는 Beque Korean Grill에서 동문들과 가족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선후배 도움으로 안정된 생활영위”

美 북가주지역 동창회, '21회 동문 70세 자축연' 개최

미국 북가주지역 동창회가 지난 5월26일 오후 1시(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뉴악(Newark)에 있는 Beque Korean Grill에서 동문들과 가족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은 현지 거주 21회 동문들이 올해로 만 70세가 되는 것을 자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갑식 북가주지역 동창회 총무 등 21회 동문들은 “선후배님들의 도움과 은혜로 안정된 북가주 생활을 하고 있다”며 “선후배님들을 모시고 자축하고 싶다”고 초대의 변을 밝혔다.

또 이들은 “선배님들에게는 영원한 후배로, 후배님들에게는 영원한 선배로 남

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근황등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다음 모임은 김선명 동문(16회)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인 1번 도로를 끼고 있는 Half Moon Bay에서 9월초에 야외모임을 하기로 했다.

◇참석자 : 무순

조동훈(9회) 박병호(11회) 유성희(12회) 전승일(15회) 김선명(16회) 정갑식 손석보 양경현 김수라(21회) 이정섭(42회) 외 동문 가족들.

입과 배가 행복했던 ‘울산지역 동창회’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지난 5월31일 북구 명촌동 ‘트레비어’에서 울산동문 번개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23회부터 44회까지 모두 10명이 모여 쾌적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수제 맥주와 푸짐한 안주로 입과 배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트레비어’에서 뭔가 모자란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일치로 뒷풀

이로 ‘참새 맛 나는 오리’를 먹으러 갔는데, 로스를 곁들인 소주입가심이 별미였다.

이날 모임에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비싼 박대동 동문(23회)도 참석했다.

뒷풀이는 이문희 동문(23회)이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참석자

이문희 박대동(23회) 권기택 이승열(28회) 전상건(35회) 박철종(36회) 허재원(43회) 나운환 이현 정영인(44회)



울산지역 동창회 번개 모임이 지난 5월31일 북구 명촌동 ‘트레비어’에서 열렸다.

31회 용마횃집서 번개모임

지난 6월8일 오후 6시30분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옆 ‘용마횃집’에서 31회 동기회 번개모임이 열렸다.

이날 모임은 경남중고 동문들의 단골집인 ‘용마횃집’의 새주인이 된 동기인 김대식 동문(31회)을 축하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식 용마횃집 대표는 동기인 오용환 전 대표로 부터 이날부터 용마횃집을 인계받아 새로 운영하게 됐다.

김 대표는 서울 강서구에서 유명 일식집인 ‘동경구락부’를 13년동안 경영해오다 이번에 고향인 부산에 자리잡게 됐다.

김 대표는 “오용환 동기가 10여년간 쌓아놓

은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하겠다”며 “동문들의 사랑받는 사랑방이 되도록 만들테니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모임 말미에 김대식 대표는 열심히 하겠으니 도와달라는 심정으로, 오용환 전 대표는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동문 여러분에게 큰 절을 올렸다.



31회 번개 모임이 지난 6월8일 오후 6시 30분 민락동 수변공원 옆 ‘용마횃집’에서 열렸다.

제21회 오거돈 동기생의 부산시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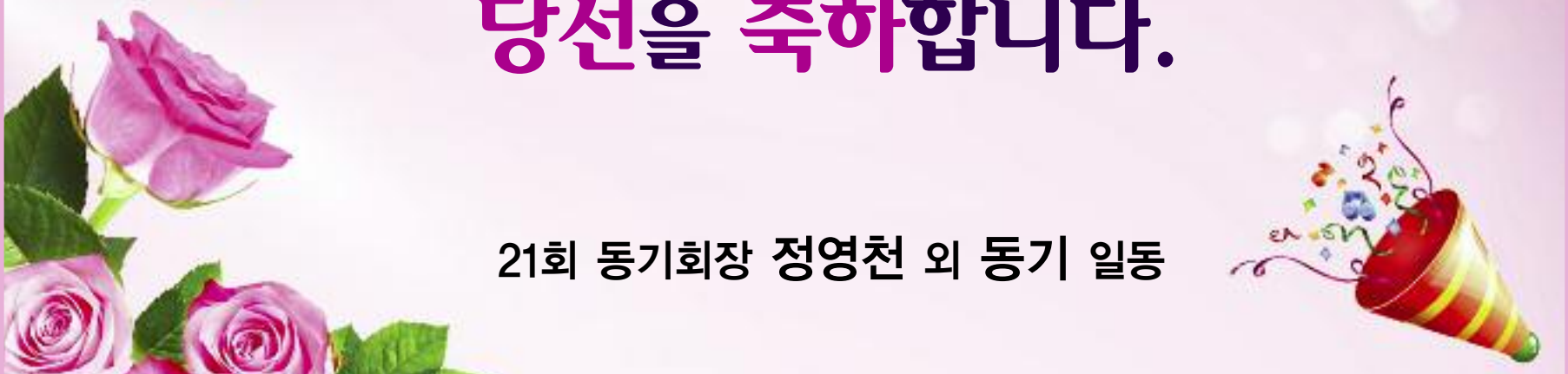
성진의료재단 동산요양병원 병원장 전 우 성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 기 현	서울프로폴리스(주) 부산 동부 지사장 송 원 경 ☎ 051-851-3596	부민병원 의료원장 김 형 동
한 광 수	푸드사랑 식자재유통 김 익 수 ☎ 010-8327-1399	법무법인 법 헌 변호사 정 영 천	법무법인 새 벽 변호사 이 강 남
춘해보건대학교 춘해병원 김 조 영	김황세 외과의원	유림냉장(주) 대표이사 배 영 일	한마음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송 태 형
(주)해 동 대표이사 이 혁	세계통상(주) 대표이사 임 경 범	명민상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수 명	국밥미소 강 수 경
대경 F&B(주) 회장 강 창 수	(주)JC텍 대표이사 정 상 인	다사랑 요양병원 원장 강 영 도	한우리 요양병원 원장 전 기 환



오거돈 동기생의 부산시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21회 동기회장 정영천 외 동기 일동



인터뷰/박명진(33회)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선배들 경험 살려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전력”

경남 김해시의 경제수장인 김해상공회의소 제12회 회장으로 박명진 동문(33회)이 추대됐다.

총동창회 사업분과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명진 동문은 부산과 김해에 기반을 둔 부동산 개발회사인 고려개발(주) 회장으로 김해유일의 5성급 호텔인 아이스퀘어를 운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올해 초 부산 기장에 있는 ‘해운대비치 골프 앤 리조트’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이런 독심을 인정한 김해상공회 인사들이 박 동문을 합의추대라는 방식으로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하면서 김해시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동문은 최근 제15회 자랑스런 부산대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박명진 동문으로부터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박명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33회)이 김해상공회의소를 이끌어 나갈 포부를 밝히고 있다.

먼저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소감은 어떤지.

– 반갑습니다.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한 33회 박명진입니다.

우선 제가 김해상의 제12대 회장으로 있게끔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지역 기업인과 경남중고 동문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계를 위해 제가 가진 열정을 쏟고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각별한 배려와 성원으로 알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역기업인의 중간 연배로서 선배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면서 경륜과 경험을 잘 습득하고, 후배님들은 잘 다독여서 김해지역 7,600여 기업이 더욱 더 화합하고 단합하도록 노력하여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역대 회장님께서 이뤄놓은 전통을 잘 계승하고 더욱 발전하여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상의를 잘 이끌어 나가겠으며, 맡겨 주신 뜻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경제와 기업성장을 위해 헌신한다는 자세로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지역 경제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김해에는 7,600여 기업과 86,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주력산업인 기계·금속·자동차·선박업종이 4,600여 기업으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종업원수가 20여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 6,500여 기업으로 인근 창원과 양산지역보다 영세하고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산업업종의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우리지역 기업들은 경영에 이종고를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의회원은 연매출 50억 이상인 1,500여 기업과 상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가입한 200여 기업을 합쳐 총 1,700여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상의는 앞으로 현장중심으로 지역기업

“기업애로사항 대변·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터” “김해시와 공조, 향후 50년 먹거리사업 만드는데 전력”

들의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건의, 경제·산업·유통 및 주요업종동향 모니터링의 조사·연구, 정책수립과 국제협력 및 통상진흥을 위한 무역지원서비스에도 총력을 기울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기업 경쟁력 확보로 실질적 종합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기업경제를 회복시킬 복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지역 주력산업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확보, 신규판로 개척 및 고부가가치 산업전환 등 우리지역 기업 스스로가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회원기업을 비롯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소통기능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김해시·유관기관·단체에 전달하고 정책공조를 통하여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역할과 해결방안 마련 및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공장 같은 지속적 기업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신규 시장진출, 첨단부품 산업전환, 기술형 중소기업전환을 위한 R&D 종합지원센터설립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위축된 지역 기업경제를 전환시킬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김해상의를 운영할 방침이신지요.

–저는 우리지역 모든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사업추진과 기업현장소통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기업 모두가 김해상공회의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종합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역경제현안에 대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비즈니스 교류의 중심에 서서 항상 기업 입장을 대변하고 형식과 절차보다는 실천과 성과의 현장중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7,600여 지역기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스킨십으로 더욱더 화합하면서 지역경제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해상공회의소가 일익 발전하여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정신과 경영환경에 맞는 경영철학으로 지역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김해상공회의소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취임이후 추진하고 있는 일과 추진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제가 상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최우선 과제로 기업과의 소통과 스킨십을 위해 20개 기업체협의회와 400여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청취한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해당기관에 건의하여 해소해 줌으로서 기업애로 대변인 역할과 유관기관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현장방문으로 상동면 매리소감천 조기준설, 진례면 테크노밸리산단 중앙분리대 철거, 수용성 절삭유 사용,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입주조건 완화, 삼계 감분마을~한림면 안곡리 구간 확포장 등의 기업애로사항을 해당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는 모범근로자 124명을 추천받아 표창하였고, 주촌 골든루트산단내 화재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도 하였습니다.

또한비회원의 소통을 위한 기업경영지원업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우리상의는 전국 72개 상의 중 무역증명서 발급건수가 9위(도내상의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FTA원산지증명서 실무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남상의 실무자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김해상공회의소는 기업체협의회와 기업간의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밀한 소통, 비즈니스 교류의 구심체 및 가교역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지역 기업들에게 꼭 필요하고 실질적인 기업지원서비스 발굴과 조사·연구, 정책수립 등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기업현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부로는 회원확충과 회비징수율을 높여 재정수입 증대를 통해 사업운영을 위한 내실을 다지고 지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현장 소통 및 서비스 내실화로 회원기업을 포함한 우리지역 7,600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에 애쓰겠습니다.

향후 50년 먹거리 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지역현안인 2023년 전국제전 김해유치활동, 노동관계 정부기관 김해지역 신설건의, 대학병원급 유치 등에도 김해시와 힘을 합쳐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전략산업인 정밀의료산업 및 의생명 특화산업단지 조성, 자동차부품 특화산업, 전기차 충전센서 등 스마트부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에어로폴리스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사업에도 우리상의가 지역경제의 구심체로서 김해시와 함께 적극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정책공조를 하여 향후 50년 먹거리 사업에 경제계가 함께 할 계획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비 허브역할, 스마트팩토리, 글로벌기업 수출지원서비스 활성화로 지역기업들이 튼튼한 뿌리를 내려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기업체 간 소통을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취임한 후 20개 기업체협의회와 400여 기업을 현장방문 소통하여 지금껏 부족했던 기업체협의회 및 기업들과의 교류를 위하여 1회성 소통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후 기업현장의 각종 경영애로 및 규제사항 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업경영애로 상담센터 신설과 기업관련 유관기관과 지역기업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고자 우리상의와 기업, 유관기관이 한곳에 모여 상생협력할 수 있는 소통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김해상의에 대한 비담으로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되는 실질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금껏 부족했던 기업체협의회 및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유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기업과 동반성장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더 겸손하게 더 최선을 다하면서 더욱더 정성을 다하여 상의다운 상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문여러분들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별 회장 • 사무국장 조직표

기수 동기회														
3회	회 국	신현익	14회	회 국	진성태 박종문	25회	회 국	송정규 여성조	36회	회 국	양호진 이학수	47회	회 국	정 신 성상용
4회	회 국	양종학 고채환	15회	회 국	손부홍 최원수	26회	회 국	김영훈 최의수	37회	회 국	장원익 윤태원	48회	회 국	피종태 김충우
5회	회 국	상기중 임외택	16회	회 국	손송방 김한선	27회	회 국	유영호 백민호	38회	회 국	오희진 신동훈	49회	회 국	최진영 최유탄
6회	회 국	박웅진	17회	회 국	박청홍 박재구	28회	회 국	김정현 김치운	39회	회 국	박근태 김종업	50회	회 국	백광선 박종현
7회	회 국	김진홍 김광옥	18회	회 국	서부원 박순정	29회	회 국	김철오 김근덕	40회	회 국	배병훈 배영진	51회	회 국	정유석 박보순
8회	회 국	조봉석	19회	회 국	남진현 김규하	30회	회 국	황철민 홍인기	41회	회 국	전삼록 성찬기	52회	회 국	김지운 김현진
9회	회 국	한동대 최성욱	20회	회 국	허규판 김세준	31회	회 국	최효식 공종렬	42회	회 국	박동식 정홍준	53회	회 국	
10회	회 국	서정철	21회	회 국	정영천 이재화	32회	회 국	이득우 김태홍	43회	회 국	박형규 전순표	54회	회 국	
11회	회 국	이 명	22회	회 국	장성덕 조흥기	33회	회 국	김윤성 주기훈	44회	회 국	안병규 우도균	55회	회 국	
12회	회 국	남기용 강창수	23회	회 국	전상대 김상영	34회	회 국	이진호 옥재명	45회	회 국	권우일 김성준	56회	회 국	
13회	회 국	장영길	24회	회 국	노삼우 김인구	35회	회 국	정윤성 김세정	46회	회 국	김백권 장윤성	57회	회 국	



5회 회장
상 기 중



12회 회장
남 기 용



12회 사무국장
강 창 수



18회 회장
서 부 원



19회 회장
남 진 현



19회 사무국장
김 규 하



20회 회장
허 규 판

20회 사무국장
김 세 준

21회 회장
정 영 천

23회 회장
전 상 대

23회 사무국장
김 상 영

24회 회장
노 상 우

24회 사무국장
김 인 구

25회 회장
송 정 규

25회 사무국장
여 성 조

26회 사무국장
최 의 수



27회 회장
유 영 호

27회 사무국장
백 민 호

28회 회장
김 정 현

28회 사무국장
김 치 운

29회 회장
김 철 오

29회 사무국장
김 근 덕

30회 사무국장
홍 인 기

31회 회장
최 효 식

31회 사무국장
공 종 렬

33회 회장
김 윤 성



33회 사무국장
주 기 훈

34회 회장
이 진 호

34회 사무국장
옥 재 명

35회 회장
정 윤 성

35회 사무국장
김 세 정

36회 회장
양 호 진

36회 사무국장
이 학 수

38회 회장
오 희 진

38회 사무국장
신 동 훈

39회 회장
박 근 태



40회 회장
배 병 훈

40회 사무국장
배 영 진

41회 회장
전 삼 록

41회 사무국장
성 찬 기

42회 회장
박 동 식

42회 사무국장
정 홍 준

43회 회장
박 형 규

43회 사무국장
전 순 표

44회 사무국장
우 도 균

47회 회장
정 신



47회 사무국장
성 상 용

49회 회장
최 진 영

49회 사무국장
최 유 탄

50회 회장
백 광 선

50회 사무국장
박 종 현

51회 회장
정 유 석

51회 사무국장
박 보 순

52회 회장
김 지 운

52회 사무국장
김 현 진

동창회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변하지 않은 우정 확인하고 추억 만든 '32회 홈커밍데이'

경남고 국산관과 팬스타크루즈서 인생 2막 시작 알려

1박2일 동안 회포 풀며 즐거움 가득
모교발전기금과 동창회발전기금 전달

경남고 32회 졸업 40주년 홈커밍데이가 지난 5월26일 오후 2시 경남고 국산관에서 열렸다.

이웅길 동기회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졸업 후 40년동안 많이 변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동기들이고 학교에 다니면서 쌓았던 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친구들과 회포를 풀면서 즐거움을 가득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득우 동기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김태홍 재무국장이 동기회기를 들고 입장했다.

국민의례와 내빈소개가 끝난 후 이득우 동기회장은 “졸업 40주년 홈커밍데이에 친구들을 만나니 반갑고 좋다. 삶의 이야기를 만들고, 지난 날의 추억을 불러오고 더 좋은 추억을 쌓아가자”며 “이번 홈커밍데이를 계기로 인생 2막의 시작을 알리자”고 인사말을 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학창시절 추억이 서려 있는 덕형관을 보면 옛날 학창시절의 추억이 생각날 것이다. 젊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열정적으로 살라”며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명당의 기를 받아가기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그리고 박 회장은 “학연을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멋지다고 생각한다”며 “동창회보 발행과 동창회관 구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동창회의 일원으로 서 역할을 분담해주시기 바란다”며 “10년 후 50주년에는 더 많은 동기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금사자기 야구때문에 서울에 출장 간 정대호 경남고 교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기련 교



감은 “자랑스런 경남고 역사는 역대 동창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풍수지리에 의하면 경남고에서 대통령이 한 명 더 나온다고 한다. 그 중 한 명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 후 모교발전기금 전달식과 동창회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케익 커팅이 있는 후 교가제창으로 모교에서의 행사를 끝내고 팬스타크루즈 탑승을 위해 이동했다.

①졸업 40주년 기념 32회 홈커밍데이가 지난 5월26일 경남고 국산관에서 열렸다. ②32회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이득우 동기회장 등이 케익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후라경고’ 울려퍼진 눈물젖은 이별의 부산역

42회 홈커밍데이 160명 참가, 광란의 2부 행사

‘42회 졸업30주년 홈커밍데이’가 지난 6월9일과 10일 이틀동안 1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1부 행사는 6월9일 오후3시 모교인 경남고 교정에 자리잡은 국산관에서 거행됐다.

1부행사에는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과 남진현 자문위원장, 옥동훈 사무총장 등 집행부와 경남고 정대호 교장이 참석해 행사를 빛내줬다.

국산관에서의 행사가 끝나고 원형교실인 덕형관 앞으로 이동해 단체사진을 찍고 2부

장소인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2부행사에는 준비해놓은 기념품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동문들이 참석했다.

44회 김정진 동문의 사회로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2부행사를 마감했다.

몇몇 동기들은 광복동 맥주집에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웠다.

다음 날인 6월10일 새벽 이기대에서 요트를 타기로 예약을 했으나 바다기상악화로 취

소되고, 대신 요즘 부산의 핫플레이스인 송도 해수욕장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에어크루즈를 타고 남은 하루의 아쉬움을 달랬다.

송도에서 동기가 운영하는 옹호동 이가한 위로 이동해 낚시의 묘미를 즐기며 재경동기들과 이별주를 마셨다.

지천명의 나이에 눈물주를 마시며 부산역에서 후라경고와 교가제창을 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졸업 30주년 기념 42회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동문들이 덕형관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42회 홈커밍데이 2부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흥겹게 놀고 있다.

기고-김두홍 선생님의 추억하면서-추영재(12회)

‘모든 문제 해결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는 큰 가르침

우리 스스로 해답에 이르기까지 질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지도



추영재(12회)
동아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우리 12회 동기회가 졸업 60주년 기념으로 모교를 방문했을 때 원형교사의 도서관을 둘러보다가 불현듯 김두홍 선생님 모습이 떠올랐다. 선생님은 조금은 강마른 체구에 귀공자태가 물씬 나는 전형적인 선비셨다. 다소 느리게 말씀하시는 진한 경북 엑센트에서 강인한 성품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특이한 강의법 때문에 선생님의 시간이 늘 기다려졌다. 선생님께서는 “너, 이거 어에 생각하노?” “그라모, 그건 어에 그렇고?” 함 생각해 보래. “도서관에 함 가볼래. 답이 있을 끼 데이”... 이처럼 강의 초두부터 질문을 던지시어 우리들이 스스로 해답에 이르기까지 질문을 이어가셨다. 그것이 ‘주입식 교육’과 대비되는 일명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고 모든 문제 해결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은 건 선생님의 결을 떠난 지 한참 뒤 필자가 유학의 길에 오른 뒤의 일이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선생님께서는 “당대 양주동, 최남선과 더불어 3대 천재”, “하늘 아래 가장 밝은 머리”라는 수식이 따라다녔으며 미당 서정주 시인의 추도사 중 “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다 회자된 바 있는 김범부(金凡父, 1897-1966) 선생의 아드님이셨다. 흔히 소설가 김동리(金東里, 1913-1995)의 16년 연상의 만형으로 더 잘 알려지고 있지만 경주 최부자 12대 장손인 최준의 부탁으로 설립한 계림대학(이후 대구대학과 함께 지금의 영남대로 통합)의 초대 학장을 지내셨으며 박정권의 통치철학과 새마을정신의 기초를 초안한 분이 선생님의 부친이셨던 거다.

소설가 김동리가 생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내 백씨(伯氏·만형)는 동기로서는 물론 ‘스승’으로서도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은의를 나에게 끼쳐 주신 분이이다” 할 정도로 그는 무엇보다도 ‘학자’로서의 면모가 더욱 두드러지신 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범부 선생께서는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대학 동양철학 학사, 도쿄외국어학교 영어학 전문학사, 도쿄제국대학 독어독문학 학사, 교토제국대학 대학원 철학 석사 등의 길고 긴 학문적 오디세이를 거치면서 당시 동양권의 선진 일본이 이루어 놓은 서구 전통의 대학도서관과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탐구학습을 섭렵할 기회를 갖았던 대 석학이었기 때문이다.

그와 아드님 김두홍 사이의 고담준론은 일방적인 設破(주입)식 강론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식 對話였다 한다. 알다시피, 주입식 학습에서는 사서삼경이나 성경/모란 등에서와 같이 집필자의 절대적 권위로 인하여 학습내용에 대한 반론이나 질문의 여지가 주어질 수 없는 유일무이의 ‘교과서’가 있을 뿐이지만, 이와는 달리 학습내용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탐구학습’을 위하여는 교과서가 배제되므로 학습자는 정보자료의 집산자인 ‘자유개가식 도서관’을 늘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

김두홍 선생님께서 우리학교 도서관 설립



김두홍 선생님이 만든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다. <사진=추영재(12회)>

임무를 맡으신 해인 1957년은 우리 12회 동기들이 입학 후 2년 동안 원형교사의 주 자제인 구덕산 일대의 돌을 채취시간과 교련시간의 짬을 내어 개미처럼 날라 마집내 그 낙성을 보고 새 교사에 처음으로 입주한 해 이자 3학년이 되던 해였다. 당시 GNP 70 달러의 최빈국 판자교실에서 자라온 우리들에게는 대형 유리창의 밝은 콩크리트 교실이다 수세식 양변기 등 초호화 시설들은 과분한 터이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한국 초유의 ‘자유개가제(開架制) 도서관’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참고: 도서관의 운영 방식은 이용자가 직접 서가에서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개가제(開架制)와 이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고 사서에게 책을 신청하면 사서가 이용자에게 책을 가져다주는 폐가제(閉架制)로 나뉜다.)

선생님께서는 걸출하신 학자적 소양 못지 않게 맑은 소임을 수행하시는 수완 또한 뛰어나셨다. 그 어려운 시절에 감히 미국문화원 도서관을 벤치마킹 하신 것이다. 당시 미국문화원은 부산 문화의 중심지인 광복동과 대청동 일대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양식 건물이었는 데 2차 대전의 전승국으로 막강한 국력을 한껏 뽐내는 위풍당당한 문화의 전당이었다. 그 외관부터가 고상하고도 중순한 색채로 도색된 데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수려한 내부 장식들과 시설들로 인하여 막 전란을 겪은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환상 같은 곳이었다. 건물의 2층을 차지하고 있는 도서관에 들어서면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서가와 안락한 의자 등 화려한 도서관 집기들에 다가 최적 독서 온도인 섭씨 16도에 자동화 된 실내온도와 환기 시설로 인하여 쾌적하기 이를 데 없는 자유개가식 도서관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선진도서관을 감히 우리학교 도서관의 모델로 삼으셨으니 그의 과감하고도 야심찬 행보는 1962년 선생님께서 초대 소장으로 발탁되면서 세우신 동대문구 회기동의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에서도 유감없이 잘 나타나있다.

마침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도서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추월영 교장께서 어떤 구체적인 연유로 당시 막 군을 제대하신 선생님께 도서관을 맡기게 되었는지는 사뭇 궁금하다. 그가 불출세의 석학이신 아버지 김범부의 은의로 학습자중심의 탐구학습에 있어서 자유개가식 도서관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인식에 투철하셨던 데다가 태생적으로 대단한 독

서기였으며 병참학교 교관으로 근무하셨던 군대 시절에 도서관을 손수 만들어 보신 경험이었었다는 사실 만은 자명하다.

당시 동료 교사들은 책 분실 등 문제를 들어 그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기도 하였지만 그의 신념과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한다. 선생님께서는 주위의 우려에도 개의치 않고 당시 ‘완전자유개가제’를 단행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종래에는 학교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방과 후에 학생들이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나 읽는 장소 좁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은 그것보다는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발견적/탐구적 교육 과정을 전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각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과목과 도서관 자료가 연계되어서 교사도 활용하고 학생들도 활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하루 종일 도서관 문을 열려 있어야 되고 교사들이 교안을 작성할 때 교과내용에 관계되는 참고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서관 청구번호까지 명시해서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교사가 교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학생들도 그 수업을 들으면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학생들이 독서 취미에 따라서 그냥 책을 읽겠다고 하면 반드시 자유개가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무슨 책을 읽겠다고 신청하면 그 책을 내주면 되는 건데, 발견학습과 연계시키다 보니 학생들 스스로 서가에 접근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데 참고가 되는 자료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개가제가 시행된 것이다.” (2007년 9월 도서관 개간지에서).

우리 12회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 선생님께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Korean Science &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er)의 초대 소장으로 전보 되셨고(1962-1968) 성균관대학 부설 한국도서관 사서교사 양성소에서도 강의하시게 되었다. 당시 1957년에 있었던 구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에 충격 받은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이 과학기술진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마침 1961년 5.16 혁명으로 탄생한 군사정권이 이에 가세하여 1962년 전기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를 서둘러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즈음, 어찌하여 한낱 고등학교 지리교사

겸 사서교사이셨던 선생님께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KORSTIC의 초대 소장으로 발탁되었는지는 참으로 궁금하다. 이후 8년이 지난 1970년 한국과학기술원(KIST: Kore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발족되고 거기에 국가 전산화 과학도서관(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이 부설되어 오늘날 전산화 정보 수집력 세계 11위(아세아 1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선생님께서 세우신 KORSTIC은 한국과학진흥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1958년 우리나라 처음으로 선생님께서 선진형 도서관과 탐구학습법을 향도하신지 6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자유개가식 도서관’을 갖춘 ‘탐구/발견 학습’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일반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선생님께서 1957년 경고에 부임하시어 주창하신지 20년이 지난 1978년에는

“하버드의 공부법레들”이란 TV 영화를 통하여 처음으로 킹스필드 교수의 소크라테스식 탐구식 강의와 자유개가식 도서관의 실상이 우리나라 대중들의 안방에 소개되었고, 그 후 30년이 더 지난 2008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거국적으로 단행된 로스쿨에서 본격적인 문답식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1958년 봄 우리 12회 동기들이 졸업한지 무려 60년이 지난 2018년 5월의 어느날 원형교사의 옛 도서관(4층에서 2층으로 옮겨졌다)을 둘러보며 행여 선생님께서 우리들 곁에 좀 더 오래 계시어 선생님의 뜻을 펼치시었더라면 아마도 우리들 중 누군가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상념에 잠겨본다. 어떤 독창적인 물음에 대한 논리적, 은유적 탐구과정의 결과가 논문이나 작품으로 귀결되고 그 정점에 노벨상이 존재하는 것’ 이라면 탐구학습과 도서관 인프라 구축(오늘날에는 도서관을 활자와 디지털화된 정보가 어울려진 ‘정보원’이라고도 부른다)만이 해묵은 우리의 노벨상 타령을 잠재울 수 있는 묘약이 될 테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초유의 자유개가식 학교 도서관”이라 아로새겨진 자랑스런 플라크가 모교의 도서관이나 교정 어딘가에 장식되어 선생님의 공적과 염원이 길이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오월의 스승의 날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두홍 은사님을 추모하며...

기고-박진용(36회) 굿모닝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노안·백내장 수술 안 하려면 예방 중요

노화 촉진시키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착용을



박진용 굿모닝 성모안과병원장이 노안과 백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창 직장 생활에 열심인 50대 K씨. 40대 중반부터 책이나 컴퓨터 글씨를 보는 게 어려워졌고 업무 중 눈도 빨리 피로해졌다.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기면서 그나마 잘 보이던 먼 거리도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 서류가 잘 안 보이는 것은 물론, 색깔을 구별하는 것도, 밤에 운전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결국 안과에 갔더니 노안과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K씨가 진단 받은 노안과 백내장은 모두 수정체의 노화로 나타난다. 투명한 수정체는 두께를 조절하여 초점을 맞춘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탄력이 있는 수정체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볼록하게, 먼 곳을 볼 때는 얇게 두께를 조절하여 초점을 맞춘다. 한마디로 눈 속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안은 수정체와 그 주변 근육에 노화가 와서 탄력이 떨어지면 수정체는 더 이상 두꺼워지지 못하고 얇은 상태로 남게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먼 곳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이는 노안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백내장은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져 나타나는 질환이다. 사물에 반사된 빛이 투명한 수정체를 지나야 망막에 깨끗이 맺히는데,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앞이 뿌옇게 보인다. 이렇게 노안과 백내장의 원인은 수정체의 기능 약화로 동일하다.

백내장 수술의 원리는 혼탁하고 탄력을 잃은 수정체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다. 기존 백내장 수술에 사용된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렌즈로, 원거리용과 근거리용이 따로 있다. 환자는 본인의 생활 방식에 두 종류의 단초점 렌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눈에 삽입한다. 만약 백내장 수술 시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렌즈를 삽입했다면 안경이 필요하고, 원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렌즈를 삽입했다면 돋보기가 필요

**노안교정술로 한 번에 치료 가능
스마트폰 사용 줄이도록...
20분 사용후 20초 휴식 필요
눈 마사지·운동 수시로 해줘야**

하다.

그런데 최근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연속적으로 우수한 시력을 제공하는 연속초점 인공수정체가 개발되었다. 백내장 수술 시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보통 '노안교정술'이라고 부른다. 단초점 인공수정체 대신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백내장뿐 아니라 노안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안교정술은 렌즈 뿐 아니라 장비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까지 백내장 수술 및 노안교정술은 초음파유화술을 이용했다. 이 방법은 수정체를 제거할 때 초음파와 에너지를 이용하고 각막과 수정체낭을 절개할 때 의료진의 수기로 진행되므로 집도인의 숙련도와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그런데 최근 레이저 백내장 수술장비 '카탈리스'가 개발되었다. 카탈리스는 레이저로 각막과 수정체낭, 그리고 백내장을 원하는 만큼 절개할 수 있으므로 수술마다 달라지던 오차 범위를 크게 줄였다.

또한 카탈리스와 함께 수술시 사용되는 '칼리스토 아이'라는 첨단 장비가 있는데 쉽게 말해 수술용 네비게이션으로 생각하면 된다. 몇 번의 검사과정을 통해 확인된 수술에 필요한 환자



박진용 동문이 환자들을 상대로 안과질환 검사를 하고 있다.

의 정확한 난시 데이터 값을 수술 현미경에 전송시켜, 의료진이 오차 없이 완벽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수술 장비와 의료진의 임상경험이 더해져 수술 후 합병증의 가능성을 줄이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노안과 백내장이 시작되면 수술 외 원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안과 백내장의 주 원인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자외선이므로 챙이 넓은 모자나 자외선 차단용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예방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선글라스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 선글라스의 검은 렌즈가 동공을 키워 자외선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한다.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율이 100% 가까이 되는 제품을 사용해야 안질환 예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직업상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없다면 20분 사용 후 20초 휴식을 취해주거나 흔들리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눈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나 눈 운동을 수시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샤인텔
Shine Tell

대표 **강 성 옥** (37회)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44번길 14(부평동3가)

Tel. 245-2337 Fax. 245-2334

Mobile. 010-2336-5459 E-mail. shine63@nate.com

광고기획 및 편집_일본어 편집 전문_마케팅리서치
매체대행_SP_CI_BI_PI_각종 서식팜플렛_카다록
리플릿_브로슈어_선거홍보물 제작_아동도서출판

**개인·동인지·시·수필집 출판
대필자서전 출간 전문**



2018 덕형리그 총 132경기 레이스 막 올라

대마도 연합팀과의 한·일 교류전을 매년 실시키로

2018 덕형리그(회장 이문열·29회)의 막이 올랐다.

덕형리그가 지난 3월 모교인 경남고 운동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리그에 돌입했다.

참가팀이 늘어나고 경기수가 많아지면서 2017년부터 오후 8시에 시작하는 야간 경기를 실시하였으나 너무 늦은 시간에 치러지는 경기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2018년도 야간경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개막식은 3월에 했지만 경기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부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이번 시즌에 참가한 팀은 29, 33, 34, 36, 37, 38, 40A, 40B, 41, 51, 52회와 구형(경남고 출신으로 부산대에 진학하여 야구클럽 활동을 하는 사회인 야구클럽)등 총 12개 팀이다.

이문열 회장은 “덕형리그가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으며 40대, 50대 기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구단 창단을 독려하고, 창단을 문의하는 팀에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며 “모교의 교기인 야구가 후배들 기수들에게도 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덕형리그에 처음 참가하는 51회 야구단은 평균연령 55세인 덕형리그에서 40세의 젊은 기수로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벌써 4강권에 진입하는 젊은 패기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40회, 50회대 기수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경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처럼 기수별 또는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양대 리그로 운영할 야심찬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해 2017년도 리그 우승팀은 젊음을 앞세운 52회가 차지 했으며, 마지막까지 선배 기수의 힘을 보여줬지만 젊음을 이길수 없었던 33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7년 12월 2일 결승전에 앞서 대마도 사회인 야구리그 올스타팀과 덕형리그 올스타팀의 한일 대항전이 열려 많은 관심과 환호를 받았다.



덕형리그가 지난 3월 경남고 야구장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일본 사회인 야구 연합팀은 비교적 젊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호타준족을 방불케하는 경기를 진행했다.

초반에는 덕형리그 올스타팀이 약간 밀리는 듯 했으나 역전에 재역전 끝에 덕형리그 올스타팀이 승리했다.

이문열 회장은 한·일 교류전을 정기전으로 격상시켜 매년 상호 방문을 요청하였고, 오는 7월 14~15일까지 이틀간 대마도 연합팀과의 교류전을 위해 대마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덕형리그 참가자들은 선수배간의 화합과 동기들의 단합 그리고 개개인의 건강까지 증진시켜 나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야구를 최고의 보약이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2017년 리그에서는 월간 MVP를 선정 김종호(31회) 한의원 원장이 매월 보약을 시상하기도 하였다.

<2018 덕형리그 집행부>

회장 이문열(29회) 고문 현응열(29회) 수석 부회장 임종태(31회) 부회장 백수현(33회) 사무국장 임창섭(36회) 사무차장 김동근(40회) 경기이사 장정석(33회) 김신욱(41회) 경기운영이사 강훈(41회) 심판위원장 이상현(43회)

<2018 덕형리그 결과>

우승 52회 준우승 33회 공동 3위 40A 구형 최우수 선수 강민호(51회) 우수투수 박흥현(52회) 다승 임태영(40회) 방어율 고용남(29회) 탈삼진 김종욱(33회)

WHIP 허치회(41회) 타격 1위 김근영(40B) 2위 장현경(29회) 3위 김경곤(38회) 최다타점 정길수(52회) 최다안타 김한교(36회) 최다4사구 박철호(34회) 홈런상 정현철(52회) 최다득점 한중현(52회) 공로상 김종호(31회)



이문열 덕형리그 회장(29회)이 우승기를 반납받고 있다.

‘구형워커스 야구단’ 창단 46주년

90년대 최강 야구단 전국대회 휩쓸어



지난 5월 19일 열린 ‘구형워커스 야구단’ 창단 46주년 기념경기에 앞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형워커스 야구단’ 창단 46주년 기념 OB : YB 경기가 지난 5월 19일 경남고 야구장에서 열렸다.

26회~37회로 구성된 OB 팀과 38회~63회로 구성된 YB팀으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됐는데 YB가 승리했다.

OB팀의 최수일 동문(26회)은 이날 투수로 2이닝을 등판, YB팀의 후배들을 상대로 4명을 삼진으로 잡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의 MVP는 최수일 동문에게 돌아갔다.

특히 이날은 구형워커스 야구단 제1기수인 26회동문들이 4명이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를 마친후 구형워커스야구단 1기부터 37기까지 회원들이 김치찌개와 막걸리로 깊은 정을 나누었다.

구형워커스 야구단은 지난 1972년 경남고 26회 졸업생들 1기로 시작한 경남고 출신 부산대 재학 동문들의 야구모임으로 시작됐다.

1980년대에 최강의 전력으로 약 10년간 부산 최강의 야구단으로 대학씨클야구대회인 피닉스기등에서 다수의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경남고출신 부산대 입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야구단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했으나, 졸업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학씨클야구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인 야구로 발전시켜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2007년 부터 약 10년간 한마음 리그를 필두로, 기장리그, 김해리그등을 거치면서 모든 경남고 졸업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현재 덕형리그에 참가하고 있다.

덕형리그에 참가하는 현역선수단은 38회~63회로 구성되어있다.

올해 구형워커스야구단은 모자 우측에 ‘JK’라는 이니셜을 넣고 덕형리그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암으로 투병중인 30회 이진광 동문의 쾌차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회장 김태명 (29회) 수석부회장 홍성수 (31회) 부회장 공진우 (33회) 총무 : 이송준 (36회)

禪僧 발자취 찾아간 경불회 ‘三寺巡禮’

‘봉암결사’ 봉암사서 성철 자운 청담 향기 느껴

경남중고 동문불자들의 모임인 ‘경불회’(회장 정영천·21회)는 석가탄신일인 사월 초파일 을 맞아 지난 5월20일 경북 문경 일대 사찰 3 군데를 방문하는 ‘삼사순례’를 했다.

특히 이번 삼사순례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일년에 한번 사월 초파일에만 개방된다는 희양산 봉암사가 포함돼 있어 불자 동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성철 스님 등 유명한 선승들이 수도생활을 했다는 운달산 김룡사와 사불산 대승사도 코스에 들어 있어 많은 동문뿐 아니라 가족들이 삼사순례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아침 8시 부산지역 인근 협성부페 앞에서 동문불자 등 89명이 대형관광버스 두대에 나눠 타고 부산을 출발해 문경으로 향했다.

첫 순례지는 문경 운달산 기슭에 아주 고풍스럽게 자리잡은 김룡사였다.

김천 직지사의 말사인 김룡사는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전국 31본사의 하나로 50개의 말사를 거느린 큰 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불편 등으로 옛날 말사였던 직지사의 말사가 됐다.

김룡사 일원의 계곡을 운달계곡이라 하는데, 맑은 물과 짙은 녹음이 어우러져 ‘문경8경’ 가운데 하나로 손꼽는다.

절 입구에서 보면 정면에 ‘慶興講院(경흥강원)’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곳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에서 최고로 큰 오돌방인데, 이날 경불회 회원들이 점심 공양을 이곳에서 했다.

그리고 명부전 옆 요사채는 성철 종정과 서암 스님 등 당대의 최고 선승들이 짧은 시절 기거했다고 한다.

점심을 먹은 후 굽이굽이 사불산 고개를 돌아 대승사에 도착했다.

대승사에는 일반 사찰과는 달리 나무로 만든 금빛의 화려한 탱화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미타여래설법상을 나무로 만들었는데 지난 2017년 국보로 승격됐다고 한다.

나무로 탱화를 만든 것을 목각탱이라고 하는데 전국에 7점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 탱화를 둘러싸고 경북 영주 부석사와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고 한다. 관련문서에 따르면 원래 이 탱화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던 것인데 1862년 대승사로 옮겨 왔다고 한다.

그 후 부석사가 반환을 요구해 시비가 일게 되었고, 1876년 대승사에서 부석사 조사전의 수리비용을 대주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해 이 목각탱은 대승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대승사의 이 목각탱을 둘러싼 소송 때의 관계문서 4개는 보물 제575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승사 불이문에는 ‘이’자 한자를 같은 뜻의 두 ‘二’이나 다른 사찰과는 다른 두 ‘貳’자를(不貳門) 적어 특이함을 보였다.

이처럼 화려한 목각탱을 본 후 삼사순례의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 순례지인 희양산 ‘봉암사’를 방문했다.

경북 문경 희양산 자락에 자리잡은 천년고찰 봉암사는 조계종 직할 선원으로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일년에 한번, 그것도 사월초파일에만 일반대중에게 개방되고 있는데 이번에 경불회 간부들이 힘을 써 사찰측의 허락을 받아



경불회가 주최하는 ‘삼사순례’에 참가한 동문들과 가족들이 문경 봉암사 마애보살좌상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평일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봉암사는 지난 1947년 성철, 청담, 자운, 월산 스님을 중심으로 행한 ‘봉암결사’로 유명한데, 이것은 부처님 당시의 수행가풍을 되살리자는 자각 행동으로서 우리나라 불교사에 큰 획을 그어 현재까지 불교 수행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일행은 봉암사 사찰을 둘러보고 마애보살좌상이 있는 백운대로 갔다.

17세기에 제작됐다고 전해지는 마애보살좌상은 높이 4.5m, 폭 4.4m로 국내 마애불 중 비교적 큰 편이라고 한다.

마애보살좌상이 자리잡고 있는 백운대 일대에는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지 않아서 인지 계곡 물이 너무나 깨끗해 순례 참가자들이 발을 담구는 등 순수한 때묻지 않은 자연을 만끽했다.

특히 마애보살좌상앞 바위는 두드리면 목탁소리가 나는 신비한 장소였다.

여기서 단체사진을 찍고 관광버스가 기다리는 주차장으로 갔는데 가는 도중 일주문 옆 바위에 ‘南無阿彌陀佛’이라는 한자가 바윗돌에 새겨져 있었다.

이 글귀를 보는 순간 40여년 전 고 3 시절이 생각났다. 이 한자가 동국대학교 본고사 시험에 나왔다고 모의고사 문제집 마다 등장했었는데, 이 어려운 한자를 외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봉암사는 사월초파일에 다른 사찰과 달리 하얀 연등을 단다고하는데, 이를 일찍 가서 그런지 연등이 없었다.

초파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직 등을 달지 않아 귀한 장면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이날 아침 출발지에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옥동훈 사무총장이 격려차 방문하고, 정영천 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희양산 봉암사 대웅전 앞에서 경불회 주최 ‘삼사순례’에 참가한 동문들과 가족들이 경내 관람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특히 1호차 안에서 서정환 사무국장(28회)의 삼사순례예정지에 대한 박식한 설명은 화룡점정이었다.

<참석자:가족,비동문 포함>

정영길 이정숙,이태랑(13회) 정영천 김문영, 정상인 문지영,변창섭 김경애(21회) 전상대 송수연,이순(23회) 박창호 허석민(24회) 서정환 한미혜 서정숙 김영애,이승열 김훈자, 정인식 박광희(28회) 박웅석(30회) 신성수 김성원(31회) 김법영,이윤조, 정영학 김미경, 남택은 이명진, 김종만 윤서현, 황상돈 유영순(33회) 박영관(34회) 김세정 최금이, 고성희(35회) 황태윤 박용진 최영훈 윤태환 신우진, 탁낙준 이미림, 김진영 김은숙, 조성각 김미애, 정재호 차영

이, 강승중 손주연, 문병오 이소연 이현숙, 김종관 한상희, 변정삼 최경설 임혜영(37회) 윤원욱 안영준(39회) 이종민 김기영, 최호열 손미정 딸, 문상현 권현옥, 김봉준 이승은, 김신욱 김현정, 강훈 임현숙, 정원규 정문규, 안광근, 이상배(41회)조영희 김양희(금강수선회) 이성선 이영이 이영채 이태영 정희원 조신호(마산)

<협찬>

정영천(21회) 150만원 김법영(33회) 100만원, 생수 남택은(33회) 20만원 황태윤(37회) 20만원 배성수(33회) 10만원 보리심(금강수선회) 10만원 서정환(28회) 떡

선후배 연결고리 언론인 클럽

“지방선거로 동문들 간 불협화음 없어야”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대변인 역할을 할 ‘언론인 클럽’ 4월 정기모임이 지난 4월 26일 오후 7시 남구 남천동 부경대 후문 근처 남남식당(32회 박종우 동문 운영)에서 열렸다.

정윤희 언론인 클럽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모임은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과 옥동훈 사무총장, 언론인 클럽 회원 16명이 참석해 동창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조선 언론인 클럽회장(34회·부산일보 감사)은 “박종찬 회장이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이후 동창회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해지고 있다”며 박회장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조 회장은 이어 “오늘 모임에 박종찬 회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회원들에게 연락을 많이 했지만 여러 선배들이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은 분이 많다”며 “선거가 끝나면 모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선거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언론인 클럽 회원인 김병국 동문(36 회)이 KBS 네트워크 센터장으로 갔는데 이것은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것”이라며 언론인 클럽으로서 경사라고 축하를 했다.

또 “박 회장님 하시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총동창회장은 언론인 클럽 명예회원이 된다”며 수락을 요청해 허락을 받았다.

이어 박종찬회장은 “언론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총동창회가 좀 어그러진 것은 선후배 교류가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언론이 역할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취임 후 총동창회 밴드를 만들어 선후배간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후배들 입장에서는 밴드를 통해 선배들과 소통을 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결국



지난 4월26일 남천동 ‘남남식당’에서 열린 ‘언론인 클럽’ 모임에서 정윤희 사무국장(36회)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동창회의 성공은 동창회보의 성공이고, 동창회보의 성공을 위해서는 회보 구독료를 확실히 받아야 한다”며 올해 구독료 납부자 목표가 4,000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현재 총동창회 조직도를 만들고 있는데 총동창회는 후배들 중심으로, 재경동창회는 선배들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다음 언론인 클럽 회원 각자 소개가 이어졌다.

가장 기수가 높은 남진현 자문위원장(19회)부터 인사가 이어졌다.

남 위원장은 “언론인은 아니지만 언론인 클

럽이 재탄생할 때부터 동창회 대표로 언론인 클럽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룡 전 동창회보 편집 주간(24회)은 “동창회에서 80년사를 편찬할 때 선배들의 행적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예전에 경남고등학교에서 ‘경고월보’를 발행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신문을 만들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경고월보’발간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상룡 전 편집주간은 “故 이태석 추모음악회와 최동원사업회에 이들의 모교인 경남고가 빠져 있다”며 “하루빨리 동창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열(23회) 이만수(28회) 동문은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 동문들간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또 하나의 논쟁이 된 것은 경남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인 김대식 자유한국당 해운대를 지구당 당협위원장의 명예동문 인정여부였다.

32회에서 많은 동기들이 명예동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32회의 결정여부에 따르기로 했다.

이날 남남식당에서 1차모임을 끝내고 인근 1999비어(40회 유태문 동문 운영)로 옮겨 2차모임을 가졌다.

2차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박종찬 회장은 이날 1차 자리에서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2차 술자리는 사비로 전액 스폰을 했다.

용건회, 총동창회장 참석에 ‘환호’



지난 5월 29일 남구 민락동 수정회관에서 열린 용건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건설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경남중고 출신 동문들의 모임인 용건회(회장 이영학·26회) 5월모임이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남구 민락동 수변공원 인근 ‘수정회집’(27회 김경진 동문 운영)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과 신승렬 사무국장 등 총동창회 집행부가 참석해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됐다.

모임이 끝나고 인근 호프집으로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 비용은 박종찬 회장이 부담했다. ◇참석자 : 박찬호(15회) 장상진(16회) 오경석(20회) 이규봉(23회) 문휘영(24회) 이영학(26회) 김경진(27회) 박성철 장기호 이병훈 이동영(32회) 박철웅(34회) 제명환 이종철 신승렬(36회) 김태호(38회) 서은식 이원영(39회) 전삼록 성찬기 김인수(41회) 장일천(42회) 이충현(49회)

용마당구대회 성황리에 마쳐

우승 이학주(24회), 준우승 황원태(23회), 3위 김옥권(25회)동문

제2회용마당구대회 개인전이 지난 6월 9일 자갈치에 위치한 ‘어데고’ 당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유승민 용마당구회 총무(34회)의 사회로 시작됐다.

김중광 용마당구회 회장(23회)의 개회사에 이은 박종찬 총동창

회 회장의 격려사를 끝으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18회부터 54회에 까지 모두 42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루었다.

응원자 참석한 동문들을 포함하면 70명이 넘는 동문들로 대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우승은 이학주 동문(24회), 준우승은 황원태 동문(23회), 3위는 김옥권 동문(25회)이 차지했다.

패자우승은 이번 대회 참가자중 가장 막내인 주영 동문(54회)이, 그리고 하이런상은 전년도



제2회 지난 6월9일 열린 용마당구대회 개인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고 있다.

우승자인 백승엽 동문(27회) 동문에게 돌아갔다.

대회 마지막에는 모든 참석 동문들을 위한 경품추첨이 있었다.

대상에는 20만원의 상품권이 시상되었다. 그외에 10만원 상품권, 5만원 상품권, 슈어캐치(김중광 회장이 경영하는 루어낚시 용품 회사)에서 제공한 백팩등 많은 경품을 김중광회장이 협찬했다.

한편 이날 격려차 참석한 박종찬 총동창회장 은 당구대회 발전을 위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NEWS 모교소식

경남고 김현민(3학년) 주말리그서 ‘사이클링 히트’

“황금사자기 우승 못해 아쉬워... 청룡기 우승하겠다”



김현민 선수

모교인 경남고 내야수 김현민(3년)이 고교 야구 주말리그 경기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달

성했다.
사이클링 히트는 타자가 한 경기에서 단타·2루타·3루타·홈런을 모두 치는 것을 말하는데 야구선수 중 사이클링 히트를 친 선수가 극소수일 정도로 힘든 기록이다.
김현민은 지난 6월2일 부산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열린 2018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 부산권 부산공고와의 첫 경기에서 3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김현민은 1회초 홈런, 2회초 단타, 3회초 2루타, 6회초 3루타를 차례로 때려 다섯 번의 타석 만에 사이클링 히트를 해냈다.
1회초 첫 타석에서 부산공고 선발투수 최용

준의 초구를 받아쳐 좌월 3점 홈런으로 장식한 김현민은 2회초에는 좌전안타를 쳤다.
3회초에는 주자 만루에서 중견수 키를 넘어가는 2타점 2루타를 날렸다.
6회초에는 외야 뜬공으로 물러났지만 타자 일순하며 맞이한 주자만루 6회 2번째 타석에서 싹쓸이 3타점 3루타를 터뜨려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했다.
김현민은 이날 6타수 5안타(1홈런) 3득점 8타점으로 맹활약하며 경남고의 19-4, 폴드승을 이끌었다.
김현민은 경기 후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첫 타석에서는 좋은 공이 오면 치자는 생각으로 초구부터 배트가 나갔는데 홈런으로 이어져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다”면서 “마지막 타석에서는 사이클링 히트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가볍게 갔다 땀 타구가 3루타로 이어졌다”고 웃었다.
이어 “황금사자기 때 우승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데 남은 주말리그 경기를 잘 마무리해서 청룡기 때 다시 한 번 정상에 도전하겠다”라고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한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김현민에게 후반기 주말리그 종료 후 권역별로 거행될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남중 야구부에 격려금 전달



박종찬 총동창회장 등 집행부가 지난 6월 15일 경남중학교 교장실에서 박승병 교장에게 야구부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6월15일 오후 경남중 교장실에서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경남중 박승병 교장에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경남중 학교 야구부에 대한 출전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총동창회에서는 박종찬 회장 뿐만 아니라 남진현 지문위원장과 옥동훈 사무총장, 신승렬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황금사자기 출전 선수에게 격려금 전달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황금사자기에 출전하는 경남고 야구부를 방문, 전광렬 감독(44회)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부터 개최된 제72회 황금사자기에 출전하는 경남고 야구선수들을 위해 지난 5월 14일 박종찬 총동창 회장 등 집행

부가 경남고를 방문, 격려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NEWS 동문동정

김영찬(29회) 인천 보훈병원 병원장



김영찬 동문이 지난 6월 20일 인천 보훈병원 병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5월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3년간이다. 김동문은 연세대에서 의학석·박사를 취득했으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인천직업자병원장,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경영원장을 역임했다.

이병건(29회) SCM생명과학 대표이사



이병건(前 종근당 부회장) 동문이 SCM생명과학의 새 대표에 선임되었다. 이동문은 서울대 공대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친 후 라이스대학에서 의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LG연구소 안전성센터장, 삼양사 초대 의약사업 본부장, 미국 익스프레스 제네틱스 CEO 등을 거쳤고 2004년 녹십자로 자리를 옮겨 녹십자,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17년 종근당 부회장을 역임했다.

정철수 하나병원장(31회), 대한화상학회 회장에 선출



화상치료전문병원인 정철수 하나병원장(31회)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대한화상학회 총회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임기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말까지 2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학회 회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료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에서 화상 치료 1세대인 정철수 하나병원 병원장은 의사들 관심 밖에 있었던 화상 치료 분야를 사실상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회장으로 선출된 것도 화상 치료 불모지였던 부산지역에서 화상전문병원을 키워내고,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동기회·동호회 소식

18회 = 바둑대회



지난 5월 30일 서면 동기회관에서 15명의 선수들과 20여명의 동기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바둑대회가 개최되었다. 토너먼트로 진행된 이 경기에서 우승은 김동선, 준우승은 박덕봉, 3위는 김태균, 새로 신설된 4위는 조성재 전회장이 차지하였다.

23회 = 월례회



지난 5월 31일 3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기 동기의 별장에서 5월 모임을 가졌다.

24회 = 제1회 경부 친선 당구대회, 산우애



지난 6월 15일 플라틴 당구장에서 28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부 친선 당구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 지난 6월 2일에는 9명의 산우애 회원들이 모여 회동수원지 일대를 산행하였다. 오는 6월 22일에는 6월 구포집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26회 = 대동제



지난 6월 3일 80여명의 동기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산막이 옛길에서 대동제가 있었다.

26회 = 월례회 및 5월 문화유산 답사



지난 5월 27일 3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 겸 부산박물관 및 UN 묘지 탐방을 가졌다.

28회 = 5월 문화유산 답사

지난 5월 13일 3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5월 문화유산 답사를 전남 강진군일원에서 가졌다.

29회 = 동기회장배 바둑 대회, 스크린골프대회

지난 6월 17일 동기회장배 바둑 대회가 푸른기원에서 열렸다.

또 지난 5월 26일에는 20명이 모인 가운데 동래골프존에서 동기회장배 스크린골프 대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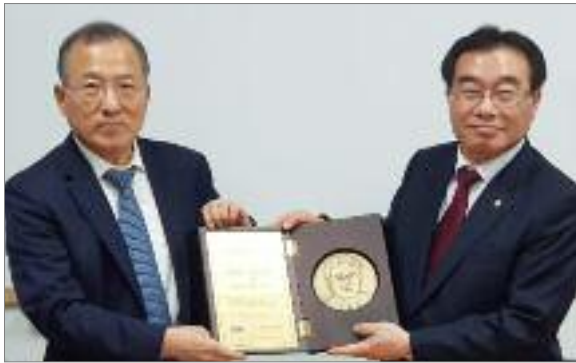
34회 = 서부지회 월례회

지난 5월 25일 하단 대가야에서 13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서부지회 5월 모임이 있었다.

40회 = 단합대회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청도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병찬 前 회장 선일회계법인 개소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이병찬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은 순금명함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참석자 모두는 선일회계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덕담을 건넸다.

이날 박종찬 회장을 비롯해 남진현 자문위원장(19회), 옥동훈 사무총장(25회), 황유명 전임사무총장 박성철 분과위원

이병찬 총동창회 전임회장(23회)의 선일회계법인 개소식이 지난 5월2일 오후 남구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401호에서 열렸다.

장(29회)김현태 분과위원장(30회), 류명석 전부회장(31회) 김중근 (34회) 신승렬 사무국장(36회) 김태호 분과위원장(38회) 이양걸 분과위원장(41회) 등이 참석했다.



41회 동기회 = 월례회



지난 6월 22일 이양걸동문이 운영하는 사상 해운대신대구탕에서 여러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6월 모임을 가졌다.

43회 = 정기모임



지난 6월 7일 2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6월 정기모임이 남양토담 오리고기에서 열렸다.

44회 = 월례회



지난 5월 25일 부산역 장춘방과 대연동와 라와라에서 2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5월 모임을 가졌다.

용마산악회 = 정기산행(경부합동)



지난 6월 10일 상주 성주봉에서 25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산행을 가졌다.

동창회보 통합논의 '없었던 것으로...'

양측준비위원들 합의로 각자 발행기로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에서 각각 발행 하던 동창회보의 통합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종전대로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에서 회보를 각각 발행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 초량동 이어도 초밥에서 지난 6월4일 낮 12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동창회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양측 준비위원인 김기열 동창회보 편집 위원(23회)과 강상대 용마 편집위원장(23회)은 동창회보를 각각 알아서 발행하기로 구두합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총동창회 측에서 김기열 위원과 신승렬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읍저버로 이상룡 전 동창회보 편집주간(24회)이 참석했다. 재경동창회 측에서는 강상대 용마편집위원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모교가 있는 총동창회는 동창회보를 발간할 의무가 있고, 발간을 지속한다. 재경동창회를 비롯한 각 지역별 동창회는 동창회보를 사정에 따라 임의로 발간 할 수도 있다는 2가지 내용에 구두로 합의했다.

이외도 이날 모임에서는 '모교 80년사'는 각

자 알아서 편찬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에도 의견 일치를 보았다.

특히 이날 김기열 편집위원은 최근 재경동창회에서 발행하는 동창회보인 '용마'지에 총동창회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부산동창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시정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앞으로 '용마'지에 부산동창회라는 표현 대신 총동창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모임은 개교 기념일인 지난 4월 27일 박종찬 총동창회장장과 옥동훈 사무총장, 신승렬 사무국장 등 총동창회 집행부와 이명규 재경동창회장, 배대관 부회장, 심재구 사무총장 등 재경동창회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경남고 회의실에서 열린 제 1차 회장단 회의에서 동창회보 통합안 등을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회장단회의에서는 동창회보를 통합하기로 하고 회보통합준비위원회에 총동창회에서는 김기열 동창회보 편집위원을, 재경동창회에서는 강상대 용마편집위원장을 각각 위촉했다.

그리고 준비위원들이 회보통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안을 최종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보통합준비위원회에서 회보통합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돌리고 각자 발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회보통합은 무산됐다. 따라서 회보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한 시일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는 선납부자 ● 총 2,155명 2018. 6. 24.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53-6722-04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박종찬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3회(5명)
송두호 신현익 윤태윤 이안규 정원준 하덕모
4회(8명)
김희수 송호길 양중학 장수호 정소모 정치근
조성일 황갑생
5회(9명)
김석호 김인택 박장후 박종구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최원구 홍관식
6회(18명)
김상엽 김중철 김태환 박웅진 배종권 변영수
손웅수 오영은 이강윤 이상기 이해훈 임경택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최인갑
7회(24명)
강병희 구택용 김갑성 김광욱 김명관 김용우
김종순 노상석 박영섭 박환배 배중현 송외득
양중완 오장은 원용부 윤용우 윤진현 이동우
이창범 임성극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허중호
8회(24명)
강상태 김영철 김영환 김재범 문창화 박우상
박희욱 배기현 배주원 안중열 엄덕양 이종택
이준혁 이창규 이현문 이호수 이희순 장혁표
전영배 정금출 최경태 최낙병 홍광수 홍기성
9회(20명)
김기관 김기학 김철규 김 청 김태영 박영복
박학철 신웅익 안규현 유병철 이동현 이주한
장동근 전인규 정해돈 조규양 조용길 지삼봉
최성욱 한동대
10회(30명)
김동민 김상규 김선동 김성규 김용규 박철민
오강욱 이계창 이근태 이봉원 이상배 이승영
이승준 이의도 이재순 이정호 임정우 장인목
장청구 전영대 정무길 정상수 정종만 정 훈
조길수 조상진 최병도 최성열 최소진 허영오
11회(57명)
강병희 강웅대 고한준 공상기 곽정출 곽태엽
권병용 김기주 김무룡 김삼진 김수정 김영식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윤택 김인섭 김재환
김태호 김태홍 김학수 김하근 문정오 박관호
박수경 박용관 박창순 박희태 서영호 서자윤
성기득 심재룡 심재홍 안강태 오길훈 오정광
유흥수 윤재관 윤태원 이계찬 이규우 이상태
이성길 이세영 이종백 이종주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운표 제정오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하중선 현정춘 (박희태 2019년)
12회(67명)
강본소 강수현 박진영 구진용 구창희 권시길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명희 김부생 김부환
김석곤 김수원 김영수 김우성 김익도 김종련
김중성 김종일 김지회 김훈호 박문기 박상도
박영윤 박장윤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섭
백응권 변동만 서병기 손재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안용득 엄태섭 오세정 오수봉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성대 이수영 이송문 이승태
이영한 이용언 이용희 이원우 이현달 이환철
임상원 장동석 장지흠 정영철 정호중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경균 최병훈 탁해정 허은도
홍두표
13회(77명)
고시준 구덕건 권영계 김동호 김무조 김상치
김신부 김영문 김창웅 김정균 김정일 김정태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김형태 김홍철 문 창

박길만 박민보 박안남 박양웅 박영주 박원길
박정웅 박종탁 박진태 박홍표 배대결 배정은
변윤식 서시주 서영웅 성정호 송신의 송창식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신하근 심관섭 안성문
안준수 양길승 윤기갑 윤정의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경준 이근모 이명진 이범경 이병한
이상문 이상택 이준범 이창열 이철세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장용웅 정로상 정문화 정은섭
제병민 조용갑 조철현 최부웅 최상호 최성욱
최태환 한관수 한병조 허갑도 황정대
(이경재 2019년)
14회(57명)
권근술 권 명 김덕호 김동규 김무남 김무웅
김재도 김준우 김창기 김태희 김형수 김학욱
노수덕 류종일 박남조 박순일 박중철 박진재
박청홍 백태우 서정환 성이경 손영목 송재현
신기석 신준호 신현호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길미 이동영 이명재 이승오 이재돈
이현영 이호근 이훈일 장삼식 전병순 전상배
정선언 정현구 조광명 조규향 조영봉 진상태
최낙섭 최병태 최성웅 최충락 하문수 한규환
허 중 황수길 황원재
15회(63명)
강무송 강민조 강부부 강정남 고석기 권승부
김경일 김소현 김쌍열 김연훈 김옥규 김정환
김종태 김중한 김준근 김중광 김중식 김판열
김황영 박영길 박영길 박영무 박찬호 박철양
박효가 배성훈 배 훈 서영진 손부흥 신웅기
신현영 오봉석 윤우경 윤희정 이상호 이선공
이의일 이정부 이종수 이종일 이종희 이칠성
이필연 임영길 장중호 정영선 조규중 조영일
조일량 조진환 최광웅 최무길 최병우 최 욱
최원수 최진모 하정부 한진출 허경도 허광길
허중덕 홍익찬 황중부 (임영길 2022년)
16회(59명)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광웅 김박일 김상웅 김상호
김양원 김응진 김정우 김 조 김충길 김태일
김현호 김형석 노원소 박두영 박영수 박용일
박종봉 박준호 박 훈 방수근 서정호 성기식
성진호 송송방 송용석 송규정 송자문 안국정
여성국 윤호주 이길홍 이맹립 이무근 이무영
이방소 이상남 이양근 이영재 이재룡 이채언
이청원 임승언 정우광 정원철 조길우 조원제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황규호
17회(48명)
감정은 강주수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성락
김성오 김용구 김용남 김용정 김준연 김준위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김호남 노동섭 박가식
박영일 박인사 박 찬 박흥식 서정승 서창석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 중 신흥규 어윤대
오충한 윤성욱 윤수성 이건웅 이광석 이수창
이재형 장길성 장웅석 정두호 정량부 정용화
제양성 차성철 최성호 하영수 허진행 황성진
18회(65명)
강대원 강덕용 강만수 강성태 강영호 강인섭
고병현 권영대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사권 김성건 김영국 김옥길
김재창 김정래 김중상 김중철 김지호 류중우
문창열 박건태 박덕봉 박동우 박상욱 박석도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종구 박종만 박준성
백승래 서부원 서재봉 손찬규 안창범 양동건

우원호 윤봉수 이금희 이영호 이충남 이태우
이형석 임채영 전기준 전상근 전영석 정구홍
정우용 정태섭 조성재 차명석 채부영 최재범
최진수 최희영 하영일 허만조 허성태
19회(65명)
강동완 강준권 강환섭 권정덕 김경우 김경재
김덕규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순호 김영복
김영탁 김재근 김정우 김중기 김중우 김진국
남진현 박갑진 박동화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배무삼 배영구 석무관 성환진 손말현 신동인
신윤철 심영섭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성달
이양환 이용조 이용흠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홍 이준만 임우근 임채원 장성규
장홍의 정규범 정규영 정수남 정용식 정태을
진수상 최경석 최상원 최희익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허홍욱 홍승표 황태경 황태원
20회(52명)
강기철 강석근 강위수 강현진 김대업 김두영
김성룡 김성환 김세준 김순신 김영철 김우홍
김일석 김진환 김태선 김한원 김현태 김형기
김형오 남기석 목일진 문상채 문시영 민영기
박용덕 박 준 백완균 백창열 손춘수 송상윤
신원기 심두수 여정호 오경석 유근준 윤봉태
윤우성 이수호 이영오 장상배 전일준 정규식
정승창 조운태 차용환 최명호 최석립 최장하
최중경 최 철 허남균 홍순태
21회(76명)
강민우 강삼태 강수경 강욱형 강창수 강태순
구봉능 구정모 구현수 김기현 김대웅 김동우
김상덕 김영삼 김유건 김익수 김조영 김지호
김창수 김현태 김형동 김환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성렬 박인협 박재선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병문 성상철 성정근 신태윤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태규 우종득 육화원 윤대희
이명환 이익규 이종규 이준성 이 혁 임경범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정화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현국 진영천 최규용 최낙환
최동완 최민석 최은영 최점수 최정림 최종린
탁원렬 하영준 한광수 한대윤 한승헌 한인환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황윤성 (김동우 2019년)
22회(73명)
강호일 김광국 김도살 김동욱 김명수 김무술
김성재 김성태 김세곤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일준 김정근 김정민 김진철 김창해 김철현
김학균 김해원 남백우 노평호 문성철 박규묘
박송묵 박연표 박재구 박재상 박준호 박홍조
배춘식 배호원 백봉주 변대석 변종호 부창전
서향용 손연모 손용섭 송현준 신중수 안영수
안진환 이상규 오세길 유재탁 이경상 이병수
이상협 이윤제 이춘식 이흥기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진 조순태
조창현 조홍기 최광욱 최성열 최학봉 하성일
하현성 한경규 한군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홍순욱
23회(75명)
강창보 고용석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상수 김상영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영철
김윤관 김익근 김정록 김종배 김종훈 김주찬
김중광 김태용 김태홍 도명세 박무열 배종순
배준석 백창영 손근식 송충송 신경재 신동규
신상희 신언근 안범두 안병을 오도준 유원형
유진무 윤길원 윤병조 윤종관 윤태규 이기호

이덕남 이병찬 이부식 이상렬 이상수 이상운
이성환 이수백 이 순 이영재 이윤석 이충호
장백기 장병규 전상대 전영조 전재홍 정귀출
정기웅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정용성 조장래
조한용 채행윤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허근창 허병상 홍영희 (이부식 2020년)
24회(98명)
강기중 강동우 곽두희 구본열 구자웅 권영기
권해영 김경남 김동운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봉용 김성득 김승탁 김영민 김영식 김유신
김윤수 김인규 김인철 김준기 김진윤 김태홍
김학성 김현태 김효근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노홍덕 문취영 박극제 박맹렬 박성표 박윤성
박창중 박창호 박천호 박해성 박홍규 배종갑
백운룡 변용준 서정대 서정득 성총기 손성호
손세영 손인수 손찬호 송수건 신장우 안상수
안형수 여옥주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윤재인
윤지현 이광호 이동진 이명규 이명복 이상우
이상찬 이 수 이영태 이재능 이재성 이종구
이창무 임덕철 임민호 장민재 전대현 전웅우
정동화 정명근 정명동 정영석 정용호 정윤상
조용화 조재진 주승환 주점권 지인덕 진병건
차문공 최연호 최진우 최현규 태창업 한상렬
한태윤 황성훈
25회(137명)
강석철 고명식 곽동원 권태용 김건우 김광돈
김광배 김구화 김규진 김길수 김남일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봉철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석 김영명 김영익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우형 김유환 김익수 김정학 김종국
김종만 김중윤 김중현 김진우 김진철 김창욱
김철수 김청수 김태선 노태호 문재인 박건수
박경립 박광용 박맹우 박성길 박세철 박원규
박을영 박인동 박종기 박종찬 박창준 배기동
배대관 배동명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석창재 손국영 손기천 송기현
송무룡 송영근 송정규 신성기 신성찬 신헌대
심영재 안대상 안희석 양승욱 양시욱 예종복
오양득 옥동훈 우경욱 우상조 우진태 유용기
윤종렬 윤태석 이계성 이근만 이태우 이동석
이동의 이명철 이민희 이상식 이상화 이성호
이우석 이찬형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학준
이한식 이흥익 임무홍 임상택 임영대 장선근
장세훈 전섭태 전영주 정무동 정신배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광도 조 익 조판제
좌상봉 주재걸 차인환 최경호 최동하 최병주
최재환 최차환 최태동 탁준길 태영산 하성룡
한석정 한준석 허영형 허 택 황근태
(박종찬 2019년)
26회(82명)
강영녕 고석훈 구영호 김광식 김기성 김기표
김두천 김상현 김영섭 김용찬 김재용 김정무
김중우 김주병 김태규 김태린 김호용 남민희
민창현 박경수 박경재 박근석 박동조 박상호
박오욱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장현 박재욱
박효대 배갑상 서치호 서헌수 성백운 성재업
손욱호 신기용 신대철 신동춘 심승택 안길효
양국명 왕정일 왕효석 윤수현 이경호 이규생
이규용 이명진 이상원 이성근 이양춘 이재봉
이정근 이주형 이창식 이희준 임정호 임철호
장경재 정익고 정한경 정현준 조만석 조일제
지용섭 최명해 최성락 최성수 최수일 최익수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총동창회)														2018년 5월 25일까지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故김근준 (1회)	100만원	김수원(12회)	10만원	김용구(17회)	100만원	박준성(18회)	20만원	김성재(22회)	50만원	강영녕(26회)	200만원	엄재홍(28회)	200만원	김해곤(30회)	200만원			
송두호 (3회)	1000만원	김용호(12회)	10만원	김용남(17회)	10만원	황광건(18회)	200만원	김우홍(22회)	300만원	권종대(26회)	100만원	옥상곤(28회)	200만원	김현태(30회)	100만원			
김주호 (4회)	20만원	김우성(12회)	10만원	김조일(17회)	10만원	강영범(19회)	10만원	김일준(22회)	30만원	김두천(26회)	100만원	옥준원(28회)	100만원	박동욱(30회)	50만원			
박석만 (4회)	20만원	김종수(12회)	50만원	김준연(17회)	100만원	김경재(19회)	100만원	김정곤(22회)	200만원	김상현(26회)	500만원	윤경섭(28회)	200만원	박원호(30회)	100만원			
박홍기 (4회)	30만원	김종원(12회)	10만원	김준위(17회)	100만원	김문기(19회)	20만원	김진영(22회)	100만원	김우갑(26회)	50만원	이경도(28회)	200만원	박재백(30회)	30만원			
양종학 (4회)	300만원	김종일(12회)	10만원	김지창(17회)	30만원	김봉호(19회)	500만원	김학균(22회)	1000만원	김종우(26회)	200만원	이만수(28회)	200만원	박정태(30회)	30만원			
장수호 (4회)	100만원	김진갑(12회)	20만원	김창운(17회)	300만원	김삼도(19회)	10만원	노세현(22회)	260만원	김태권(26회)	10만원	이만재(28회)	100만원	박철우(30회)	100만원			
정순모(4회)	200만원	김철기(12회)	100만원	김태호(17회)	20만원	김석윤(19회)	20만원	민훈기(22회)	10만원	김 형(26회)	200만원	이승하(28회)	100만원	서강태(30회)	110만원			
정인조 (5회)	100만원	김춘광(12회)	10만원	김호남(17회)	10만원	김양곤(19회)	50만원	박상갑(22회)	50만원	김호용(26회)	200만원	이원용(28회)	100만원	서민석(30회)	60만원			
김윤용 (6회)	10만원	김호구(12회)	10만원	문석웅(17회)	50만원	김영우(19회)	100만원	박언표(22회)	100만원	박권범(26회)	200만원	이원철(28회)	400만원	서복현(30회)	100만원			
나오연 (6회)	100만원	남기용(12회)	1000만원	박가식(17회)	100만원	김정국(19회)	10만원	박재상(22회)	2000만원	박상호(26회)	1550만원	임재덕(28회)	100만원	서재원(30회)	30만원			
노재형 (6회)	10만원	박영윤(12회)	10만원	박신도(17회)	200만원	김중기(19회)	10만원	박재인(22회)	50만원	박재욱(26회)	500만원	정성목(28회)	200만원	서하수(30회)	200만원			
오영은 (6회)	200만원	박용운(12회)	10만원	박영두(17회)	20만원	김철호(19회)	100만원	손연모(22회)	100만원	배용호(26회)	50만원	정영주(28회)	50만원	석대식(30회)	30만원			
이길상 (6회)	30만원	박정윤(12회)	10만원	박영일(17회)	10만원	남기진(19회)	100만원	유재진(22회)	1000만원	성재업(26회)	50만원	정해영(28회)	100만원	송영환(30회)	100만원			
이희문 (6회)	30만원	박종정(12회)	100만원	박인사(17회)	100만원	박갑진(19회)	30만원	이동열(22회)	100만원	성재일(26회)	200만원	최강호(28회)	500만원	송한식(30회)	30만원			
임경택 (6회)	10만원	박창수(12회)	30만원	박재구(17회)	20만원	박동화(19회)	300만원	장무성(22회)	100만원	양준영(26회)	50만원	한명재(28회)	200만원	신범주(30회)	30만원			
장재수 (6회)	20만원	안상직(12회)	30만원	박종구(17회)	100만원	박상식(19회)	50만원	장성복(22회)	1000만원	엄윤섭(26회)	100만원	한수범(28회)	50만원	신영주(30회)	30만원			
정건용 (6회)	10만원	안영규(12회)	20만원	박청홍(17회)	100만원	박종화(19회)	100만원	장성덕(22회)	1000만원	왕정일(26회)	100만원	허영철(28회)	200만원	신윤원(30회)	30만원			
정상철 (6회)	30만원	안영배(12회)	10만원	백철균(17회)	10만원	성낙출(19회)	100만원	장영근(22회)	100만원	이경호(26회)	100만원	김기영(29회)	50만원	안종화(30회)	100만원			
정세동 (6회)	20만원	엄태섭(12회)	30만원	서재홍(17회)	20만원	신윤철(19회)	30만원	정해진(22회)	50만원	이규생(26회)	70만원	김대욱(29회)	3000만원	오경태(30회)	10만원			
최상해 (6회)	10만원	오세정(12회)	20만원	서정승(17회)	200만원	안정모(19회)	20만원	조윤재(22회)	200만원	이상원(26회)	200만원	김도태(29회)	30만원	왕순모(30회)	30만원			
허 택 (6회)	30만원	옥계한(12회)	100만원	손성근(17회)	200만원	이성달(19회)	100만원	최학봉(22회)	100만원	이순철(26회)	50만원	김석윤(29회)	30만원	유영록(30회)	10만원			
이우호 (7회)	50만원	왕한균(12회)	100만원	송유근(17회)	30만원	이용만(19회)	10만원	허범도(22회)	1000만원	이영덕(26회)	100만원	김영기(29회)	10만원	유재일(30회)	10만원			
故공상태 (8회)	100만원	윤성희(12회)	12만원	송인문(17회)	100만원	이용흠(19회)	1000만원	김동욱(23회)	200만원	정거돈(26회)	100만원	김인술(29회)	100만원	윤기송(30회)	50만원			
구본섭 (8회)	100만원	이수영(12회)	10만원	신정아(17회)	10만원	이장희(19회)	100만원	김동욱(23회)	50만원	정국근(26회)	100만원	김정암(29회)	100만원	윤성덕(30회)	1000만원			
김봉길 (8회)	500만원	이승훈(12회)	10만원	신 중(17회)	30만원	장홍의(19회)	500만원	김상영(23회)	50만원	정익교(26회)	100만원	김종명(29회)	30만원	윤인태(30회)	50만원			
박동열 (8회)	1000만원	이용언(12회)	50만원	안정의(17회)	30만원	최연근(19회)	10만원	김영기(23회) ¹ 억	200만원	조일제(26회)	50만원	박동일(29회)	50만원	윤준송(30회)	30만원			
안종열 (8회)	100만원	이원우(12회)	100만원	여성열(17회)	10만원	최하익(19회)	10만원	김용기(23회)	20만원	최수일(26회)	50만원	박동혁(29회)	200만원	이광봉(30회)	30만원			
윤상현 (8회)	10만원	임정명(12회)	30만원	오태식(17회)	100만원	황태경(19회)	20만원	김용선(23회)	30만원	하원규(26회)	500만원	박상길(29회)	100만원	이광희(30회)	20만원			
이윤조 (8회)	100만원	정대식(12회)	10만원	우기남(17회)	50만원	황태원(19회)	1000만원	김정록(23회)	20만원	한원우(26회)	100만원	박성철(29회)	200만원	이기환(30회)	100만원			
장혁표 (8회)	100만원	정영철(12회)	200만원	윤성욱(17회)	500만원	황호균(19회)	100만원	김중광(23회)	100만원	하주곤(26회)	50만원	박인평(29회)	50만원	이명건(30회)	30만원			
김영국 (9회)	10만원	최병준(12회)	10만원	윤수성(17회)	30만원	강석근(20회)	300만원	김태용(23회)	100만원	26회	구형회	100만원	배진영(29회)	100만원	이영준(30회)	30만원		
김종호 (9회)	50만원	최병훈(12회)	10만원	이건우(17회)	100만원	강영환(20회)	10만원	김 현(23회)	30만원	김진희(27회)	100만원	사공운곤(29회)	30만원	이인길(30회)	50만원			
김태영 (9회)	10만원	최신일(12회)	20만원	이성흠(17회)	30만원	김세준(20회)	100만원	노영배(23회)	200만원	류재결(27회)	10만원	송희태(29회)	50만원	이학수(30회)	700만원			
박당희 (9회)	20만원	탁혜정(12회)	10만원	이세복(17회)	1000만원	김원율(20회)	10만원	박수갑(23회)	100만원	문두찬(27회)	500만원	양승오(29회)	80만원	이한수(30회)	20만원			
성백규 (9회)	10만원	하일민(12회)	30만원	이수창(17회)	100만원	김일석(20회)	100만원	서영수(23회)	100만원	윤종택(27회)	10만원	윤종경(29회)	150만원	이환기(30회)	30만원			
신석현 (9회)	20만원	한춘배(12회)	10만원	이우기(17회)	10만원	김태선(20회)	300만원	서한현(23회)	10만원	이요섭(27회)	30만원	윤형근(29회)	50만원	인준송(30회)	20만원			
이대규 (9회)	100만원	김정성(13회)	30만원	이일영(17회)	10만원	김태영(20회)	500만원	손군식(23회)	100만원	이 현(27회)	10만원	이경호(29회)	100만원	임영수(30회)	50만원			
이영구 (9회)	10만원	이경재(13회)	100만원	이정보(17회)	10만원	김형오(20회)	1000만원	송충송(23회)	50만원	한수길(27회)	200만원	이석조(29회)	500만원	임영호(30회)	30만원			
한동대 (9회)	50만원	이정명(13회)	30만원	이종길(17회)	10만원	노기태(20회)	500만원	신상희(23회)	100만원	27회	동기회(60명)	2740만원	이승호(29회)	100만원	장영조(30회)	30만원		
황영선 (9회)	20만원	정철기(13회)	30만원	이종혁(17회)	100만원	(경고 직접 기부)		안병율(23회)	20만원	LA지역	27회	동기회(4명)	이종포(29회)	50만원	정영호(30회)	100만원		
김상국(10회)	20만원	황일인(13회)	100만원	이형우(17회)	100만원	박병철(20회)	500만원	안병화(23회)	20만원			400만원	임광영(29회)	100만원	정승진(30회)	30만원		
김선동(10회)	20만원	김경일(15회)	1000만원	장승구(17회)	200만원	박형준(20회)	100만원	안성민(23회)	100만원	구영소(28회)	500만원	임상헌(29회)	50만원	정재화(30회)	60만원			
김성규(10회)	50만원	서정욱(15회)	10만원	전경명(17회)	100만원	배서호(20회)	200만원	옥치범(23회)	300만원	김관세(28회)	100만원	전장화(29회)	100만원	천성일(30회)	10만원			
박재경(10회)	10만원	손부홍(15회)	500만원	정량부(17회)	100만원	백문찬(20회)	100만원	원인건(23회)	200만원	김기태(28회)	300만원	장 만(29회)	100만원	최상호(30회)	50만원			
박종문(10회)	20만원	이상모(15회)	30만원	정태일(17회)	100만원	신원기(20회)	200만원	육병천(23회)	20만원	김만중(28회)	300만원	정 길(29회)	100만원	최영규(30회)	20만원			
신대수(10회)	20만원	임영길(15회)	100만원	정해표(17회)	10만원	이실근(20회)	100만원	윤순현(23회)	200만원	김명영(28회)	200만원	정성훈(29회)	100만원	최우철(30회) ² 억	500만원			
오강욱(10회)	200만원	하정부(15회)	10만원	제양성(17회)	50만원	장상배(20회)	300만원	이동성(23회)	100만원	김부윤(28회)	100만원	조승제(29회)	100만원	(2억 경고 직접 기부)				
이봉원(10회)	10만원	한해수(15회)	1000만원	조용운(17회)	30만원	장춘식(20회)	10만원	이문희(23회)	200만원	황유명(29회)	30만원	송종재(29회)	30만원	최재봉(30회)	100만원			
이언희(10회)	20만원	강종국(16회)	10만원	조증언(17회)	500만원	정규식(20회)	300만원	이병찬(23회)	300만원	김상정(28회)	100만원	강석철(30회)	30만원	추태명(30회)	10만원			
임호웅(10회)	20만원	강진중(16회)	10만원	천용광(17회)	10만원	정용환(20회)	300만원	이상수(23회)	50만원	김용석(28회)	110만원	권영인(30회)	30만원	하규영(30회)	100만원			
전영대(10회)	20만원	김상호(16회)	100만원	최만식(17회)	5000만원	차상곤(20회)	200만원	이충호(23회)	100만원	김정유(28회)	200만원	권용택(30회)	50만원	하전근(30회)	10만원			
정승석(10회)	50만원	박춘호(16회)	10만원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총동창회)										2018년 5월 26일 ~ 2018년 6월 21일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박석도(18)		30만원	42회 동기회		2,000,000						
박명진(33)		1,500만원	- 소계 : 1,730만원		- 총 누계금액 : 13억4,437만원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김진국(31회)		12만원	신상해(31회)		12만원	조현우(31회)		12만원	김재선(33회)		100만원	김영훈(36회)		100만원
김태근(31회)		100만원	신수열(31회)		12만원	천장호(31회)		12만원	김종만(33회)		20만원	김철원(36회)		100만원
김판덕(31회)		12만원	심규열(31회)		12만원	최경우(31회)		32만원	김종인(33회)		12만원	이동희(36회)		30만원
김현주(31회)		12만원	심재홍(31회)		12만원	최봉근(31회)		12만원	류장근(33회)		100만원	임창섭(36회)		30만원
김현율(31회)		12만원	안기수(31회)		24만원	최상규(31회)		12만원	류홍영(33회)		30만원	정인석(36회)		30만원
남기태(31회)		200만원	안우현(31회)		60만원	최재호(31회)		12만원	박명진(33회)		5500만원	김길영(37회)		20만원
남철우(31회)		60만원	오민일(31회)		300만원	최진섭(31회)		200만원	박성병(33회)		10만원	김원범(37회)		10만원
류명석(31회)		100만원	오용환(31회)		120만원	최해영(31회)		12만원	백수현(33회)		50만원	박용진(37회)		50만원
박경수(31회)		200만원	윤정수(31회)		20만원	최효식(31회)		60만원	서재영(33회)		100만원	양귀수(37회)		10만원
박석기(31회)		100만원	이병태(31회)		100만원	하명수(31회)		30만원	송종현(33회)		100만원	조영규(37회)		20만원
박석두(31회)		100만원	이석우(31회)		12만원	하학열(31회)		120만원	신용준(33회)		10만원	홍병일(37회)		10만원
박인정(31회)		12만원	이승진(31회)		12만원	한광규(31회)		12만원	이순환(33회)		1000만원	홍원석(37회)		10만원
박종규(31회)		100만원	이채웅(31회)		24만원	허일헌(31회)		12만원	이형근(33회)		50만원	황태윤(37회)		10만원
박희암(31회)		12만원	장건호(31회)		12만원	홍성수(31회)		120만원	장인실(33회)		10만원	37회 동기회		200만원
배정우(31회)		12만원	장성호(31회)		12만원	김창범(32회)		20만원	최영두(33회)		12만원	곽동열(38회)		10만원
서동균(31회)		12만원	장재훈(31회)		12만원	박영욱(32회)		30만원	한상봉(33회)		100만원	박준표(38회)		20만원
서수교(31회)		100만원	장평우(31회)		300만원	이병준(32회)		100만원	34회 동기회		1000만원	오희진(38회)		10만원
서태교(31회)		100만원	정 문(31회)		120만원	최춘호(32회)		100만원	오상민(34회)		30만원	이종명(38회)		300만원
손영태(31회)		1억원	정용정(31회)		50만원	허 규(32회)		10만원	이재완(34회)		500만원	김도경(39회)		20만원
(경고 직접 기부)			정인화(31회)		12만원	허재창(32회)		30만원	이진호(34회)		200만원	김윤홍(39회)		30만원
성오용(31회)		12만원	정정남(31회)		132만원	32회 동기회		200만원	김동인(35회)		10만원	김진호(39회)		20만원
손은정(31회)		12만원	정철수(31회)		500만원	계동원(33회)		30만원	김병수(35회)		10만원	박인석(39회)		100만원
손정수(31회)		24만원	조성근(31회)		12만원	김기산(33회)		70만원	이남기(35회)		10만원	양정교(39회)		10만원
손진기(31회)		12만원	조영기(31회)		24만원	김법영(33회)		3000만원	황용순(35회)		10만원	이영수(39회)		10만원

동 창 회 보 광 고

동창회보 광고를 받습니다.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광고가 동창회의 활력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 광고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뒷면 전면광고 200만원 / 반면광고 100만원
안쪽 전면광고 150만원 / 반면광고 75만원
4단 하단광고는 40만원

광고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 051-245-7551~3
또는 동창회보 편집주간 ☎ 010-3878-3485

경남중고 총동창회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배덕수(8회) = 5월 16일 작고 ▶허덕수(13회) = 6월 3일 작고
▶지인식(17회) = 6월 10일 작고 ▶배구윤(24회) = 5월 8일 작고
▶배종수(24회) = 5월 18일 작고 ▶박성철(24회) = 5월 28일 작고

◎ 바로 잡 습 니 다 ◎

지난 5월 25일에 발행된 417호 동창회보에 몇 가지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7페이지 3번 사진 설명 중 이명찬이 아니고 이명철(25회)운영위원장입니다.
8면 조직도에서 분과위원이 아니라 분과위원장
으로, 기독동문회 회장 이요섭은 26회가 아니라 27회로 바로 잡습니다.

배덕수	배구윤	배종수	배성철
8회	24회	24회	24회
작고	작고	작고	작고

동창회보 편집위원 10명

23	김기열	24	박창호	24	이상룡	29	김종명	29	최명식
31	배정우	34	조 선	36	정윤희	38	강병균	39	윤원욱



투 고 환 영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용마동문 여러분의 소식을 알리는 창입니다. 여러분의 동정 및 모임, 칼럼, 수필, 시, 기행문, 감상문, 사진, 그림 등을 동문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싶은 것이면 무조건 환영합니다. 아래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편집해 동창회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yongma2007@hanmail.net

동창회보 편집주간 김성원(31회)

오거돈(21회) 동문님의 시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The future drive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주)

Mercedes-Benz 회장 유재진 (22회)



스타자동차 진서장 해운대 051-709-630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우동)
 금 정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랑대로 1912(구서동)
 울 산 052-701-0503 울산 남구 삼산로 83(달동)
 StarClass 인증중고차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랑대로 1912(구서동)

서비스센터 해운대 051-797-961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우동)
 금 정 051-776-9811 부산 금정구 중랑대로 1912(구서동)
 울 산 052-705-7203 울산 남구 남종로 74번길 1(이상산동)
 대표번호 1688-2369[Benz] www.mbstar.co.kr